

博士學位論文

社會資本의 地域社會參與에 關한 研究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政策學專攻

洪性模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社會資本의 地域社會參與에 關한 研究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政策學專攻

洪性模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社會資本의 地域社會參與에 關한 研究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위 論文을 政策學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 政 學 科

政 策 學 專 攻

洪 性 模

洪性模의 政策學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_____ (印)

審査 委員_____ (印)

審査 委員_____ (印)

審査 委員_____ (印)

審査 委員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사회자본에 대한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	8
1.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성	8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23
3. 사회자본의 측정	30
제 2 절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45
1.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및 특성	45
2. 지역사회참여의 구성요소	47
제 3 절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의 관계	52
1.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53
2.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	56
제 3 장 조사 설계	61
제 1 절 분석의 틀	61
1. 연구 모형	61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62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65
제 3 절 설문지 구성	67
1. 설문지 구성	67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8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68
2. 자료의 분석방법	69
제 4 장 분석결과	70
제 1 절 조사도구의 검증	70
제 2 절 표본의 특성	71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1
2. 변수의 기술 통계치	75
제 3 절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참여의 분석결과	77
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77
2.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95
3.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97
제 4 절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	105
1. <가설1>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105
2. <가설2>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107
3. <가설3>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108
제 5 장 결론	110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10
제 2 절 정책적 제언	113

【참고문헌】	117
【부 록】	126
ABSTRACT	130



【 표 목 차 】

<표 2-1>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	13
<표 2-2> 주요학자들의 사회자본의 정의, 목적 및 분석단위	18
<표 2-3> 주요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자본의 개념 비교	20
<표 2-4> 선행 연구자의 사회자본 구성요소	24
<표 2-5> 소진광(2004)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33
<표 2-6> 정기환 외(2006)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34
<표 2-7> 홍영란 외(2007)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35
<표 2-8> World Bank 연구물의 사회자본측정구조	36
<표 2-9> Narayan & Cassidy(2001)의 사회자본 측정 틀	37
<표 2-10> SCCBS 사회자본 구성요인 및 측정지표	39
<표 2-11> 영국의 사회자본 측정 틀	40
<표 2-12>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	42
<표 2-13> 호주 통계청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	43
<표 2-14> 박희봉·김명환(2001)의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자본 측정지표	44
<표 3-1> 설문지 구성	67
<표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68
<표 4-1> 변수별 신뢰도 계수	71
<표 4-2> 성별의 빈도분석 결과	72
<표 4-3> 연령의 빈도분석 결과	72
<표 4-4> 최종학력의 빈도분석 결과	73
<표 4-5> 직업의 빈도분석 결과	74
<표 4-6> 평균수입의 빈도분석 결과	74
<표 4-7> 거주형태의 빈도분석 결과	75

<표 4-8> 설문문항 응답 값의 기술 통계분석	76
<표 4-9> 사회자본과 성별에 대한 분석결과	78
<표 4-10> 사회자본과 연령에 대한 분석결과	80
<표 4-11> 사회자본과 최종학력에 대한 분석결과	81
<표 4-12> 사회자본과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	82
<표 4-13> 사회자본과 평균수입에 대한 분석결과	84
<표 4-14> 사회자본과 거주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86
<표 4-15> 지역사회참여와 성별에 대한 분석결과	87
<표 4-16> 지역사회참여와 연령에 대한 분석결과	88
<표 4-17> 지역사회참여와 최종학력에 대한 분석결과	90
<표 4-18> 지역사회참여와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	91
<표 4-19> 지역사회참여와 평균수입에 대한 분석결과	93
<표 4-20> 지역사회참여와 거주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94
<표 4-21>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96
<표 4-22>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98
<표 4-23> 사회자본과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100
<표 4-24> 사회자본과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101
<표 4-25>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103
<표 4-26> 가설1 검증결과	106
<표 4-27> 가설2 검증결과	107
<표 4-28> 가설3 검증결과	108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62
<그림 4-1>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영향관계	99
<그림 4-2> 사회자본과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의 영향관계	101
<그림 4-3> 사회자본과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의 영향관계	103
<그림 4-4>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참여의 영향관계	10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사회과학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사회자본이다. 산업화, 민주화를 성취한 서구 여러 국가들에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된 사회자본에 대해 오늘날에도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사회자본은 객관화되거나 체계화된 형태로 축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현실 속에 각인되어 그 사회의 기능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조직하며, 실천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강제력을 지닌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확산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경기의 침체와 그 파장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세계경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 또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비관적 전망을 남발하거나 지나친 현실왜곡으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상황개선 내지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실, 한국사회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대량실업, 빈곤층 확대,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 전반에 치명적인 상처를 경험한 바 있으며, 시장경제 성공의 이면에서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사회보장의 기본적 틀을 완성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인된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강력한 수단은 그리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 중심의 사회 안전망의 작동효과 및 사회 복지적 대응방안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시장질서에서 이탈된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보호와 완전경쟁이라는 시장개념의 비현실성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시장실패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시장실패가 이해되기 시작하였던 19세기 이후의 국가는

사회를 보호해야하는 실제적 주체로 등장되었으며, 복지국가의 틀은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사회보험의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복지의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제도화된 복지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간의 성장과정에서 도출된 난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위기의 도래에 따른 복지국가 후퇴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복지사회의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현 시대는 기존의 소극적 또는 조세 의존적인 복지체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 복지체계의로의 전환·수용이 당면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고 속도의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는 복지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에게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복지 대안 모색의 시급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지역사회는 전통사회와 달리 공동체적 상호부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수평적 상호작용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의 복지적 대안으로 다른 아닌 민간 영역 특히,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자본이란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시민사회집단 간의 신뢰로 구성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이는 둘 이상의 개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실증된 비공식 규범으로 이 규범들은 실제적인 인간관계속에서 구체화 된다. 이러한 규범들이 사회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내의 협력을 이끌 수 있어야 하므로 이들은 정직, 공동체의 유지, 의무나 호혜성의 준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덕목과 관련을 가진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일상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사회구조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용에서 나타난다. 조직이나 시장 혹은 국가가 사회자본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는 특정 조직이나 시장 혹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즉,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인 물리적 자본 및 훈련을 통하여

축적되는 인간자본(human capital)과 같은 유사하게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과 행동을 쉽게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및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오홍석, 2002: 26-27).

사회자본은 일면 매우 오래된 개념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그 유용성을 조명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학술적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레토릭이 되어버림으로써 본래의 사회관계적 의미는 많이 희석되었다. 물론 사회자본 개념의 지나친 일반화와 유행은 사라져가는 공동체 정신에 대한 향수를 반영한다. 이는 불행히도 사회자본이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일컬어지는 건강한 사회적 규범들을 모두 아우르는 가치 중심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배경이다.

한편,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적어도 중요한 두 가지의 갈등을 공유하는데, 하나는 한 사회의 경제적 조건 하에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효율성과 집단적 차원의 사회규범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자본이 사회적 배제 또는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지역사회 내 특정집단의 집합적 행동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에 있어 신뢰,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이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이 증명되면서 도출되는 당연한 질문이며, 동시에 반대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의 이면에서 사회자본이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는 연구결과들로부터 귀결되는 질문이다.

즉 사회자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문제에서 각기 저마다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이를 각각 지지하는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자본 개념자체가 갖고 있는 다차원성과 가변성, 그리고 이론적 모호성에 기인한다. 이론의 엄밀성과 간결성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사회자본 개념의 실제적 적용가능성과 유용성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산업화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본재 이외에도 신뢰, 시민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음이 갈파되면서 경제

적 자본재와 같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있어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이다. 동시에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의 이면에서 사회자본이 현대사회의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성장위주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대처 방안으로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도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교육, 복지, 경제적 성장, 지역 활성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자본은 바로 이것이다. 즉, 복지국가의 실천전략으로서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공동체 내부의 호혜성과 신뢰를 구성하는 통합성(integration)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연결망을 구성하는 연계성(linkage)으로부터, 거시적 수준에서 정부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응집성을 의미하는 완결성(integrity)과 공공-민간의 상호 보완적 성격을 의미하는 시너지(synerg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의 다수준·다차원 연구는 개입 주의적 복지국가의 역할을 넘어서고 이를 대체하는 자유주의적 담론이기보다는, 사회집단의 역동성과 발전이 사회의 역사와 규제와 틀이라는 맥락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제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처음에는 가족과 동료의 자원에 의지하지만 욕구가 증가할수록 점차 1차 집단을 넘어서는 폭넓고 자율적인 연대를 만들기 마련이며, 집합적 효능감의 실현은 국가와 사회 양자의 이해관계, 요구, 자원의 결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빈곤과 복지는 단순히 임금, 자산, 건강 등의 함수가 아니다. 사회자본은 빈곤에 대한 경제 주의적 접근방식을 보완하고 다른 지점에서는 이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도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과정 모두를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본질상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이며, 사회조직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쇠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의 유용성과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자체가 갖고 있는 다차원성과 가변성, 이론적 모호성 등의 제약으로 실제적 적용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사회자본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발전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일부 선진국의 특수한 경험과 정치현상에 국한되어 검토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동 개념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사회자본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위획득, 교육성취, 연결망, 그리고 호혜적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종종 있었지만, 이를 국가의 정책차원으로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한편 지역사회 발전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최대 목표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정부의 확고한 지도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정부와 사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즉,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형성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써 지역사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집합적 행동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써 사회자본의 기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실태와 지역사회 참여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수준과 편차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신뢰, 규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정도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연구는 그것의 효과보다는 원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빈곤지역의 사회해체가 지역주민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자본이 갖는 실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일련의 근린사회효과(Neighborhood Effects) 연구들은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변수들을 이미 내놓고 있다. 빈곤, 불평등, 거주안정성, 자원응집력 등이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결정요인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밝히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또한 목적이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참여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일련의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어떠한 영역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하위 변인들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주목한다. 즉,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신뢰, 규범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시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논문 및 서적 등을 통해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선행연구를

근거로 작성한 설문지는 1차 사전 조사의 실시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 내의 8개 사회복지관과 기타 관공서 종사자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여 1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예비조사를 토대로 발견된 문제점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설문항목들을 조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s 15.0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의 복지관 및 관공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내용상 범위는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로 한정하고 사회자본은 Putnam(1993b: 35-42)의 연구의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사회참여는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의 네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기존의 문헌연구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은 이러한 2장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기타 연구에 필요한 조사 설계를 구성하였다. 제4장은 제3장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들을 빈도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양한 통계적 기법들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및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회자본에 대한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

1.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성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목적에 따라 이웃, 지역사회, 조직, 국가 및 국제사회 등 다양한 수준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그 정도도 다양하다. 사회자본은 일차적으로 신뢰, 상호관계, 협력과 관계가 있는 시민의 일련의 가치와 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회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관계가 활발해져 구성원의 개인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정부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즉 시민의 합리적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주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박희봉, 2002: 5).

Coleman(1988: 98)은 사회자본을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사회구조적 측면의 가치”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집단의 사회구조가 집단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구조를 합리적 행위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자본이 행위자 간 관계 구조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사회자본은 개인차원에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Coleman(1988: 98)은 신뢰, 정보, 규범, 효과적인 제재, 권한관계, 집단 내 의무 등에서 사회자본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보편적인 이론이나 경험적 측정도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초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박희봉, 2002: 5-44). 사회자본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어지고 있지만 각 학문분야의 초점이나 강조는 많은 차이를 보여 왔고, 같은 학문분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새로운 영향력의 개념이지만 아직 완결된 개념이 아니라 논쟁중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Putnam(1995: 667)은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편익을 위한 조율과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norms), 사회적 신뢰(trust)”라고 정의한다. 특히 Putnam(2000: 20-23)은 사회자본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자본이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자본은 관계에 존재하며, 관계는 교환을 통해 형성된다. 관계형성을 통한 연계의 유형이 사회자본의 토대가 되며, 교환을 통해 형성·유지되는 사회자본이 결국 교환을 촉진하는 순환과정으로 나타난다(Bourdieu, 1986: 241-258). 예를 들면, 서로 신뢰하게 되면 보다 기꺼이 상호 협력하고자 하고, 이는 다시 신뢰를 증진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의 국면들은 조직 내 구성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써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박희봉, 2002: 219-237).

사회자본의 국면 중 신뢰는 지식과 정보의 교환과 공유, 의사소통의 원활화, 각종 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 간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지식의 교환과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신뢰가 없다면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며,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비용이 발생하며, 도덕적 위험 및 역선택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박희봉, 2002: 219-237). 그리고 베버의 ‘강요된 신뢰(enforceable trust)’는 집단의 구성원이 가지는 의무로서의 신뢰와 행위들의 규칙을 말한다. 이는 완성적 의미의 공동체적 동기라기보다는 도구적 동기로서, 개인들이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주의화된 신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Portes & Sensenbrenner, 1993: 1320-1350).

규범은 공유된 언어와 행동양식, 조직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교환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상황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도

록 조장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는 조직의 문제해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결합과 축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바탕이 된다. 각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조직의 자산으로 결합·축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박희봉, 2002: 219-237).

또한 네트워크는 지식과 정보의 교환과 조직 활동에의 참여에 기여한다. 네트워크의 형성은 신뢰와 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지식의 교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조직 내 네트워크의 형성은 조직구성원 간 그리고 조직의 하위단체 간 정보와 지식의 전달과 공유, 의사소통의 원활화, 참여의 조장을 통해 조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희봉, 2002: 219-237).

전술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다양한 이론적 기원은 현재의 사회관계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분화 발전하여 사회자본이라는 명명 하에 접근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자본은 도덕적 자원으로서 사용함에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자원이며,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고갈되는 자원이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의 특성은 다른 전통적인 자본이 사적 재화(private good)인 것과는 달리 공공 재화(public good)라는 것이다(Putnam, 1993a: 82). 모든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뢰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질서를 원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은 일정지역의 주민들 간 상호 신뢰감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어 왔다(오홍석, 2002: 29).

Bourdieu(1986: 248)는 “상호인식(mutual acquaintance and recognition)에 기반 한 제도화 된 관계(institutionalized relationships)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원의 집합”이 사회자본이라고 본다. 다만 이때 자원이라 함은 실질적인 것은 물론 잠재적인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Bourdieu(1986: 248)는 유대관계의 네트워크(a network of ties)만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사회자본은 현재 관계의

변형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는 신뢰(trust)에 기반하며, 양의(positive)방향의 관계이어야 한다고 본다. Bourdieu(1986: 243)는 자본은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형태를 띤다고 한다.

경제적 자본은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것이고, 문화적 자본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본화가 가능한 것이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본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준기, 2006: 311).

Bourdieu(1986: 248)는 문화자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1980년대 들어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체계적인 학술 개념으로서 가장 먼저 사회자본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규정한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자본은 사회관계 내에 잠재하는 특정한 목적 또는 행동을 끌어내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에는 신뢰, 규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이는 집단인 결사체의 네트워크가 포함된다(오홍석, 2002: 31).

1) 부르디외(Bourdieu)의 사회자본

사회학자 Bourdieu(1986: 248)는 사회자본을 관계망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홍현미라, 2005: 13). Bourdieu(1986: 248)는 사회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나 기회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공통적 속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속적이고 유용한 관계에 의해 뭉쳐진 사람들의 총체인 한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으로서 ‘인맥’이란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대를 통한 사회자본의 재생산은 끊임없는 사회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서 승인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사교행위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사회자본

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서, 서로 알고 있음이나 상호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관계망을 소유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획득하게 되는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어 앞서 제시했듯이 관계망이라는 사회관계의 실제(홍현미라, 2005: 13-14)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속적 네트워크와 집단 소속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르디외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자본’을 축적된 역사(accumulated history)로 요약하며, 자본이란 축적된 노동(accumulated labor)으로서의 가치(상품)이고 순환 및 자기증식하는 가치(상품=축적된 노동)라고 본 마르크스적 자본재를 경제재(economic goods or assets)로서만이 아닌 교육재, 문화재, 사회재, 정치재 등으로 자유롭게 확장하였다(김상준, 2004: 63-95; 홍영란 외, 2006: 재인용).

부르디외의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는 연결망, 자원, 그리고 관계라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연결망의 크기와 자원의 양이 사회자본의 분명한 두 요소인 반면, 사용가능한 자원들이 특별한 사회적 위치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관계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이는 사회관계에의 배태성(embeddedness)을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연결망 연구들에 의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부르디외의 접근법은 공유된 신뢰나 호혜성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여타 자본의 한 형태로 사회자본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장(field)이론 및 아비투스(habitus)개념과 함께 비판적 관점에서 계급의 차이들이 생산되고 고착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사회자본을 특정 조건하에서 다른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제도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관계들의 체계로서의 장(field)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들로 구성되고 이들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인지와 행동들을 다른 계급과는 구별되는 다른 습성으로 내재화하며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본은 다양한 계급들이 해당 장(field)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자본들을 동원하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하지만, 이 역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다른 자본을 획득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각 집단은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협동적 또는 배타적으로 행동하며, 동시에 사회적 응집력과 함께 대립도 양산한다는 것이다.

<표 2-1>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의한 배타적 소유만 인정되던 자본의 개념 수정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 소유자	개인(자본가)	개인(노동자)	가족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자본 소유자가 갖는 이익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 구별 짓기,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형태	물질적 대상(생산수단)	교육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채화된 기술·지식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분석 단위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 또는 집단
연구의 초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착취관계	교육과정과 임금수준의 연관성 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 간 계급 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유형

자료: 유석준 · 장미혜 · 정병은 외(2003).

2) 콜만(Coleman)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콜만(Coleman)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Coleman, 1988: 95-120).

브루디외가 사회자본을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연고주의와 불평등한 계급 재생산적 관계 속에서 접근했다면 콜만의 사회자본에 대한 생각은 ‘개인을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서 사회 구조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콜만은 선행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자본, 사회적 연대 등과 같은 개념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권위관계, 신뢰의 관계, 그리고 규범 개념과 결합하여 사회자본을 구체화 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대표하는 그의 사회자본 정의는 “기능들의 총합”이며, 사회구조로서의 특성들과 그 구조 속에 속한 개인들의 행위들을 촉진하는 실체들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Coleman(1988: 95-120)의 사회자본은 그것의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데, 그것은 특정한 하나의 실체가 아닌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해야 한다. 즉, 사회자본은 첫째,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둘째,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Coleman은 사회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사회자본이 없을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자본은 물리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같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특정한 행위에 특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Coleman, 1988: 95-120).

콜만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는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을 준다. 행위자는 특정 목표를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익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는 한 그 관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특정한 사회구조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을 촉진시키는 사회구조로서 Coleman(1988: 95-120))이 제시한 것은 연결망의 폐쇄성과 전유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다. 연결망의 폐쇄성은 효과적인 규범의 존재 및 신뢰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사회구조가 폐쇄적이지 않다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그 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판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집합적 제재라는 것도 개방된 사회구조에서

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는 폐쇄된 사회구조 속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유 가능한 사회조직의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조직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자본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Bourdieu(1986: 248)와 Coleman(1988: 95-120)에 의해 시작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의 정치문화나 조직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다. 미시적 접근은 최근 "연결망분석(network analysis)"이라는 계량적 방법에 의해 발전하고 있으며, 거시적 접근은 설문에 기초한 대규모 사회조사 결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유석춘 외, 2003: 271-275).

Bourdieu(1986: 248)와 Coleman(1988: 95-120)의 연구와 같이 개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나 범위, 혹은 연결망 내의 위치에 따른 중심성이나 배타성, 자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유석춘 외, 2003: 271-275). 따라서 미시적 연구에서는 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원동원 측면에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을 둔 가치 또는 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거시적인 연구는 주어진 문화나 조직의 차원에서 파악된 사회의 특성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유석춘 외, 2003: 271-275).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논의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Putnam(1993a: 82)을 들 수 있으며, 그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한 형태로서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인적자본,

물적 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을 가져오면서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의 투자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정기환 외, 2006: 재인용).

Putnam(1993a: 169)은 저서 “Making Democracy Work”에서 이탈리아의 남북부 지역 정부의 거버넌스와 경제적 번영정도의 차이는 사회자본이라는 집단적 자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레임을 미국으로 옮겨온 그의 이후저서 “Bowling Alone”에서 Putnam(2000: 20-23)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사이 미국 사회에서 볼링 인구가 늘어나는데 반해, 볼링 단체는 줄어드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이유는 “나홀로 볼링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면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보다 적은 수의 조직에 가입하고 더 적은 수의 이웃과 알고 지내며, 친구들과 갖는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직장, 가족구조, 세대, 텔레비전, 컴퓨터, 여성의 역할, 기타 다른 요소들이 사회자본의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Putnam은 사회자본이 급감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삶이 피폐해져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김준기, 2006: 309).

미국이 기술 및 미디어의 발전과 세대별 차이로 말미암아 시민사회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각 사회제도의 효율성이 낮아졌으며,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의 후퇴, 범죄율 증가, 민주화 및 경제수준의 하락 등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 정부 프로그램이 현존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파괴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시민 참여에 의한 지역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사회자본이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됨을 의미하는 반면,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회자본은 사실 그간의 지역사회 역량(community capacity),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지역사회 역량강화(community empowerment),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등과 명백하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자본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들인 Bourdieu, Coleman, Putnam의 관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기 차이를 지닌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Bourdieu(1986: 248)는 불평등과(사회적)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자본은 공동체 멤버십을 통해 이익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즉 투자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Coleman(1988: 95-120)은 다소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논한다. 한편 Putnam(1993b: 35-42)은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정체성, 시민적 참여와 네트워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집단적 자산’으로 간주하였다(구혜정, 2002: 275-296).

Putnam(1993a: 167)은 사회자본을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들”로 정의한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은 다른 시민들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정보비용을 줄여주고 협력을 조장하게 된다. Putnam에게 있어 네트워크란 개인들 사이의 대면적이고,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결사체들(associations)로 대표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신뢰, 상호부조의 규범,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민참여의 역량을 생성한다.

Coleman(1988: 95-120)이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반면, Putnam의 경우 수평적 조직에 대한 참여, 신뢰와 상호부조의 일반화된 규범 등과 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관계의 몇 가지 측면에서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므로써 사회자본의 개념을 보다 쉽게 조직화하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Putnam이 정치문화 또는 시민문화의 전통 속에서 사회자본을 협의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Foley & Edwards, 1999: 141-173; Jackman & Miller, 1998: 47-73).

Putnam의 사회자본의 개념이 갖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사회자본을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집합체들(collectives)이 가지는 자원들로 언급하는 것이다.

즉 Bourdieu(1986: 241-258)와 Coleman(1988: 95-120)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된 덕분에 행위자들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반면, Putnam의 경우 사회자본을 지역사회나 국가가 갖는 집합적 자원으로 간주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각 학자의 사회자본에 대한 관점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표 2-2> 주요학자들의 사회자본의 정의, 목적 및 분석단위

	정의	목적	분석 단위
Bourdieu	집단적 재화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자원들	경제적 자본의 확보	계급경쟁 속에 있는 개인들
Coleman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자원으로서 사용할수 있는 사회구조의 측면들	인적 자본의 확보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속에 있는 개인들
Putnam	상호편익을 위하여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경제의 확보	국가적 환경속에서의 지역들

자료: Winter(2000): p.5

위의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에서 시사하듯이 사회자본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에는 사회자본의 차원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작업이 아직까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 4).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Fukuyama(1995: 7, 26, 33)는 미국 도심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흑인 소유가 거의 없고, 유대인이나 한국인 등 다른 인종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흑인 ‘하층민’ 사이에 결여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신뢰를 지목했다. 그는 공동체적인 성향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Coleman(1988: 95-120)이 말하는 ‘사회자본-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단체와 조직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Coleman(1988: 95-120)의 논의를 발전시켜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신뢰는 상호성의 규범과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협동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호 호혜성, 시민적 임무, 도덕적 의무 등은 안정적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신뢰는 또한 경제적 성장에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 등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성, 도덕적 의무감,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등이 사회적 관습으로 배태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ortes(1998: 6)는 사회자본을 연결망이나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확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자본의 근원을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완성적 동기란 행위자가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규범이 집단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이며, 도구적 동기란 상호성의 교환과 공동체적인 의무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강요된 교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Woolcock(1998: 151-208)은 이민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이 미시적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구조에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배태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이루는 사회적 연대(social ties)를 말하며,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조직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상승효과(synergy)를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른 조직들과 연계성을 갖는 것이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 사회제도 속에서 기업이 지니는 능력과 신용(institutional capacity and credibility)을 의미한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사

회적 자본이 미시적 혹은 거시적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는 지에 따라 사회자본이 경제성장과 긍정적 관계에 놓이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한 공동체가 발전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integration)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넘어선 다른 주류 사회와의 연계성(linkage)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oolcock, 1998: 151-208).

많은 연구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OECD(2001)는 사회자본을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가치 및 이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집단에 의해 공유되므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와 행동 규범의 산물로서 개인 간의 관계에 존재하므로 인적자본이나 물리적자본과 차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 밖에 학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다음 <표2-3>에 제시하였다.

<표 2-3> 주요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자본의 개념 비교

저자	사회자본의 정의/개념적 특성
Baker, 1990	행위자(actor)들이 특정 사회 구조들로부터 얻어낸 뒤,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이용하는 자원: 그것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변화에 의해 창조됨
Belliveau et al., 1996	한 개인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엘리트 제도적인 협력 관계 (eliteinstitutional affiliations)
Bourdieu, 1986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와 연계되어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집합. 특정 상황에서는 경제 자본으로 변환할 수 있고 고귀함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제도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관계)들로 구성됨
Bourdieu & Waquant, 1992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에 의해서 개인 혹은 집단에 생기는 현실적·실체적인 자원들의 합
Boxman et al., 1991	후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는 자원들
Burt, 1992	친구, 동료, 보다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재정적·인적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
Coleman, 1990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며,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진 여러 가지 실체들: 이는 모두 '사회적 자본의 관점을 약간포함,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특정 행동들을 촉진, 자본의 다른 형태들처럼 사회자본 역시 생산적이어서 특정 목적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줌

Portes, 1998	사회 네트워크 혹은 다른 사회적 구조 안에 멤버십을 소유하여 이익을 지키는 행위자들의 능력
Brehm & Rahn, 1997	집단적 행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는 시민들 사이의 협력적인 관계망
Inglehart, 1997	자발적인 조합들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신뢰와 관용의 문화
Fukuyama, 1995, 1997	집단과 조직의 공통목적을 위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1995) 협력이 허용된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의 특정한 집합(1997)
Thomas, 1996	시민사회 내에 집단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수단들과 과정들이 형성되는 것
Putnam, 1995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조정과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형태
Loury, 1992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키거나 시장(marketplace)에서의 중요한 기술과 특성의 습들을 돕는...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인 재정적인 유산만큼 중요한 하나의 자산
Nahapiet & Ghoshal, 1998	개인이나 사회 단위의 관계 네트워크 안에 깊이 내재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실제적·잠재적인 자원들의 의합.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집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자산들을 둘 다 포함
Pennar, 1997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망들
Schiff, 1992	일련의 사회구조적 요소들로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 및 효용 기능을 위한 투입요인이나 전제들
Woolcock, 1998	한 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관계의 정보, 신뢰, 규범들
Baker, 1990	행위자(actor)들이 특정 사회 구조들로부터 얻어낸 뒤,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이용하는 자원: 그것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에 의해 창조됨
Belliveau et al., 1996	한 개인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엘리트 제도적인 협력관계 (eliteinstitutional affiliations)
Bourdieu, 1986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집합. 특정에서는 경제 자본으로 변환할 수 있고 고귀함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관계)들로 구성됨
Bourdieu & Waquant, 1992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에 의해서 개인 혹은 집단에 생기는 현실적·실체적인 자원들의 합
Boxman et al., 1991	후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들

Burt, 1992	친구, 동료, 보다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재정적 · 인적자 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
Coleman, 1990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며, 두 가지 공통적인 특 징들을 가진 여러 가지 실체들: 이는 모두 사회적 자본의 관점을 약간포함,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특정 행동들을 촉진, 자본의 다른 형태들처럼 사회자본 역시 생산적이어서 특정 목적의 성취 를 가능하게 해 줌
Portes, 1998	사회 네트워크 혹은 다른 사회적 구조 안에 멤버십을 소유하여 이익을 지키는 행위자들의 능력
Brehm & Rahn, 1997	집단적 행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는 시민들 사이의 협 력적인 관계망
Inglehart, 1997	자발적인 조합들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신뢰와 관용의 문화
Fukuyama, 1995, 1997	집단과 조직의 공통 목적을 위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1995) 협력이 허용된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공식적 가 치나 규범의 특정한 집합(1997)
Thomas, 1996	시민사회 내에 집단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수단들과 과정들이 형성되는 것
Putnam, 1995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조정과 공동 협력을 촉진 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형태
Loury, 1992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키거나 시장 (marketplace)에서의 중요한 기술과 특성의 습들을 돕는...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인 재정적인 유산만큼 중요한 하나의 자산
Nahapiet & Ghoshal, 1998	개인이나 사회 단위의 관계 네트워크 안에 깊이 내재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실재 적 · 잠재적인 자원들의 합.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 집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자산들을 둘 다 포함
Pennar, 1997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 성장에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망들
Schiff, 1992	일련의 사회구조적 요소들로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 및 효용 기능을 위한투입 요인이나 전제들
Woolcock, 1998	한 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관계의 정 보, 신뢰, 규범들

자료: Adler & Kwon(2000), 홍영란 외(2006)에서 재인용.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개념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분석 대상의 단위와 학문적 관심의 영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

게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다양성과 그로 인한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여러 분석 단위로 접근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은 다차원 수준의 구조적, 기능적, 그리고 맥락적 의미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개념이며, 이러한 복잡성을 두고 학자들은 사회자본의 그 의미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사회자본이 최소한 개인,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에 속하는 사회적 관계들을 지칭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관점의 통합을 통해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개인과 집단이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정의한다. 그 구성요소는 본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며, 사회자본의 형태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권력과 자원들을 동원·분배하는지를 설명하는 네트워크가 된다.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들을 매개하여 개인들의 연대감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과들을 고려한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자본의 개념이 무형이고 추상적인만큼,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만큼,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도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network),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선행연구자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 선행 연구자의 사회자본 구성요소

선행 연구자	사회자본 구성요소
Bourdieu(1986)	신뢰, 협력
Coleman(1990)	신뢰, 호혜성의 규범
Putnam(1993)	신뢰, 규범, 관계망
박희봉, 김명환(2000)	신뢰, 규범,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
최영출(2004)	신뢰, 규범, 집단협력, 사회적 포용
서혜숙(2006)	참여, 네트워크, 신뢰, 협력
조인근(2008)	신뢰, 네트워크, 규범

출처 : 김창학(2010).

1) 네트워크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네트워크이며, 이는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다. 사회자본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규범과 정보의 흐름은 네트워크가 기능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구혜정, 2002: 275-296).

한편,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뢰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주기도 한다. 신뢰구조가 사회자본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도 ‘신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이다. 개인들 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유형화할 수 있고, 이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회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한상미, 2007: 11-66).

Putnam(1993b: 35-42)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진시키며,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과거의 성공적 관계, 즉 협력의 경험으로 구체화하며, 미래의 협력을 위한 가치적 준거 틀로서 기여한다고 보았다. Putnam(1993b: 35-42)은 네

트워크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가교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결속형 네트워크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자본 형태이고 가교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자본 형태로 규정하였다. 즉 가교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단정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을 비교할 수 있는 ‘다소간의 정도’의 차원들이라고 보았다.

Putnam(1993b: 35-42; 2000: 20-23)의 이탈리아와 미국 지역인구 이래 최근 사회적 자본 연구는 지역단위에 적용이 활발하다. 지방단위의 사회적 자본형성은 정보접근의 확대, 의사소통의 증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지방민주주의(high-quality local democracy)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 단순히 국가나 지역 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연계(linkage)를 통해 과급되며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발전된 지역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Lin, 2001: 55-56).

네트워크는 또한 사회자본의 축적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Coleman(1988: 95-120)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규범과 신뢰가 증가하므로 사회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Portes(1998: 6)는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고 폐쇄적일수록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가 정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urt(1997: 339-365) 역시 내부적 연결이 강한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정보 획득에 불리하다고 보았는데,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 모두 사회자본 축적에 있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보다 유리한 네트워크를 판단하는 데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게 된다.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곽현근, 2004: 259-285; 홍현미라, 2005: 16-17).

2) 신뢰

신뢰는 사회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기도 하며, 사회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뢰는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안우환 외, 2005: 29-50). 또한 사회자본의 전형적인 예로서 사회적 안정과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거나 혹은 폐쇄된 네트워크에서는 신뢰에 의존하거나 신뢰를 증진시키는 호혜적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 그 자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속성일 뿐, 그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맺는 신뢰관계 대상의 양 뿐만 아니라 중첩성이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한상미, 2007: 11-66).

Coleman(1988: 95-120)에 의하면 신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는 구체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상호부조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호부조(*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라고 명명되며, 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유된 가치나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와 상호부조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규칙의 공정성과 공식적 절차, 쟁점의 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와 상호부조를 말한다(곽현근, 2004: 259-285).

초기에는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탈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Coleman은 신뢰가 사회생활의 마찰을 제거하는 윤활유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신뢰는 호혜성의 규범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자본의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정의 내렸다.

한편, Fukuyama(1995: 33)에 의하면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개별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수준은 한 사회의 고유한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신뢰를 담는 그릇이 사회자본이라고 보았다.

3) 규범

사회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는 상호 호혜성을 들 수 있다. Coleman(1988: 95-120)은 상호호혜성이라는 용어 대신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였는데, 그에게 있어 상호부조의 규범은 상호부조의 ‘호혜적 성격’과 ‘규범’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leman(1988: 95-120)에 따르면 이러한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하며, 사회적 지원, 지위, 명예, 그리고 다른 보상에 의해 강화되어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자본이 된다. 또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자제하고 가족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는 가족구성원을 만들어내고, 보살핌과 헌신으로 뭉친 작은 집단을 통해 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키워낸다.

즉, 자기 억제적 행동에 대한 외적 보상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집합적 생활에 존재하는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Bourdieu(1986: 241-258)는 “관계의 네트워크는 전략 등의 투자의 산물인데, 이는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견딜만한 의무감(감사, 존경, 우정의 태도 등)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Putnam(1993a: 170)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에 대해 언급하며,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은 시민참여의 연결망에 의해 확고하게 증진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적 호혜성에 의존하는 사

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인데, 이는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보다 효율적인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호혜성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간혹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러한 일반적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인 동시에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또한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관계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돌아오는 상황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호혜성은 신뢰와 관련되며, 신뢰 없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이 나타날 수 없다. 또한 호혜성은 신뢰를 증가시켜주고, 호혜성의 실패는 신뢰를 감소시킨다.

4)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Coleman(1988: 98)은 “사회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복합체이다. 이들은 사회구조의 몇몇 측면을 구성하며,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한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Putnam(1993a: 169) 역시 사람들이 협동한다면 사회가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회자본을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라고 하였다.

한편 사회자본은 그 기능에 의해 정의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의 측면이라는 요소와 그 구조 내에서 특정 행위자의 특정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후자는 물리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경우와 같다. 다른 자본과는 달리 사회자본은 행위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관계 속에 존재하면서 그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박희봉, 2001: 223). 이러한 점에서 Newton (1999: 8)은 사회자본을 규범, 신뢰,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가치, 정치·경제·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서로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자본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라고 정의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나 대체로 사회자본이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이희창·박희봉, 2005: 1185).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자본은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신뢰, 상호 호혜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같은 구성요소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으로, 신뢰와 호혜성은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귀납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자본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평면적 일상 관계 속에서 특정 목적의식이 보다 강하게 개입되고, 보다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 그 관계가 일정 유형을 띄게 될 때 비로소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다. 신뢰와 호혜성 역시 사회자본을 인식하는 귀납적 도구로서, 가치, 신뢰, 호혜성은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가 되며, 실체가 없는 이러한 개념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귀납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고 보았다(한상미, 2007: 11-66).

네트워크는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작동함으로써 사회자본이 발생한다. 만일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사회자본은 형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담는 그릇이며, 신뢰와 호혜성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박숙미, 2002: 12-73). 아울러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네트워크로 표현된, 신뢰에 기반을 둔 호혜주의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호혜주의 규범은 협력행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Putnam, 1993a: 169-170 ; Fukuyama, 1995: 26). 신뢰는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와 관계되며, 밀도 있는 네트워크는

신뢰를 증진시킨다(Lin, 2001: 19).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인 신뢰와 호혜성과 구조적 측면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선 순환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자본의 측정

사회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사회자본의 개념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지만, 여전히 합의된 개념 도출이 어려운 만큼 사회자본에 대해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는 사회자본의 개념요소 설정 및 접근 시각에 따라 측정내용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측정에는 사회조직의 참여에 따른 정치적인 행동, 사회공동체의 참여,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사회자본은 정부 및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관료 및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측정될 수도 있다(김준기, 2006: 316).

다른 측정방식은 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와 호혜주의와 관련된다. 신뢰는 선행을 베풀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따른 ‘맞교환(tit for tat)’ 성격의 치밀한 계산이 아니며, 오히려 언젠가는 선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입각하게 된다(Coleman, 1988: 95-120).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살펴보고,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회자본 측정도구를 밝혀내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져 온 국내외 사회자본 측정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 측정수준과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겠다.

1) 사회자본 측정영역과 측정지표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

상이다. 그런데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퍼트남(Putnam, 1993a: 167-170; 2000: 20-23)의 정의에 따라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경험적 연구의 분석단위가 개인인가 아니면 집단인가에 따라 그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남궁근, 2007: 306).

대체로 사회자본에 대한 측정은 부분적으로 신뢰나 참여 등과 같은 가치적 부분에 의존해야 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고 연구자 및 연구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사회자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방법론이 사용되는 등 측정 도구의 불일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한상미, 2007: 11-66).

그러나 경험적 연구의 분석단위가 일반시민, 공무원 등 개인인 경우에는 대체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사회자본을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려면 구성요소별로 각각 하위요소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설문문항이 설계되어야 한다(남궁근, 2007: 306).

사회적 신뢰의 경우 응답자가 신뢰의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뢰의 대상은 연구목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족, 이웃, 일반시민 등),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신뢰(시민단체, 경제단체, 자선단체 등), 정부에 대한 신뢰(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체적인 부처)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남궁근, 2007: 307).

개인이 관계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개인이 소속한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이 속한 네트워크는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특징에 따라 수평적 네트워크(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선단체, 문화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와 수직적 네트워크(동창회, 친목회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

적 네트워크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긍정적 사회자본이라고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수직적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은 부정적 사회자본으로 보기도 한다.

규범이란 상호호혜의 규범으로 개인이 공동체주의, 이타심, 관용성 등의 규범적 요소별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한편 정치 참여를 또 하나의 중요한 하위요소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 유세, 정치적 후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개념을 외연적으로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사회자본 자체의 특성을 그 원인 또는 결과와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남궁근, 2007: 306-308).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사회자본의 측정도구로는 구조적·인지적, 공식적·비공식적, 수평적·수직적, 질적·양적, 도구적·이타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자본 개념의 모호성, 불안정성은 모든 사회적 특징들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만들어 내었지만, 이러한 측정 도구들은 그 이론적 배경에 충분한 동의를 얻어내는데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하게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대개의 실증 연구들에서는 객관적 요소로서의 네트워크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 요소로서의 규범과 가치를 주로 측정하고 있다. 물론, 신뢰나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정도구들은 관계의 구조와 떨어져서 논의 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과 같은 결속연결망은 무조건적인 호혜성과 개별화된 신뢰를 띄고 있지만, 동창회 등과 같은 가교연결망은 간접적이고 공평한 호혜성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관대한 신뢰를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보편화된 신뢰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생성된 지역사회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신뢰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사회적 관계에서 배태된 개인의 개별적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한편, 사회자본 측정의 구조적 접근으로서 네트워크를 조작화 하는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형태들을 파악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지만, 연결망의 크기, 자원의 종류, 자원의 양, 접근성 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이 또한 측정도구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2) 국내연구에 적용된 사회자본 측정지표

국내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지역개발학 등의 분야에서 사회자본 이론을 도입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로 그 유용성을 논의한 기초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사회자본 측정을 시도한 국내의 대표적 연구로서는 박희봉·김명환(2001: 219-237), 소진광(2004: 89-11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소진광(2004: 89-118)은 사회자본 측정을 위하여 사회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를 설정하여, 성남시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시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의 개념요소로서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소진광(2004)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념요소	표현인자
신뢰기반	공공정책결정 과정에 대한신뢰, 직업 상거래 관계에 대한신뢰 주변 개인 관계에 대한 신뢰, 가족 간의 신뢰, 지역사회 안전 체감
네트워크	지역사회 참여단체 수(봉사단체, 종교단체, 이익단체, 클럽, 계모임, 친목단체, 향우회 등), 이웃의 범위, 지역사회 리더십, 도움 필요시 지원체계 구비 정도
사회적규범	지역사회 규범 인지정도, 청소년 선도, 범죄율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율, 자신의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
참여기회	지역행사 참여횟수, 투표 참여율 피선거권 행사의향(시의원, 도의원, 시장 등) 시, 구, 동 자문 혹은 공익단체 자문 참여 횟수
이타적성향 및 포용력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 주변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정도 사후 재산처분에 대한 태도, 다양성의 포용력

자료: 소진광 (2004).

정기환 외(2006)는 마을과 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와 그 속에 중첩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의 사회자본 측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해당하는 4~6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6개 농촌마을의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개념의 구성요소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표2-6>과 같고, 지표 구성요소별로 사회자본 측정이 가능하도록 각각 2개 이상의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2-6> 정기환 외(2006)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본질적 개념	하위 개념
사회적 교환과 보상	사회적 지위 향상, 동료 간 신뢰 증진, 애경사 때 상부상조, 기회에의 접근성, 자원배의 접근성, 규범준수 의무
협동	노동 교환, 애경사 때 지원, 공동 기금 조성 참여, 회의 참석 정도, 공동 행사 참여, 단체 지지
경쟁	품질 경쟁, 생산 경쟁, 지도력 경쟁, 지위향상 경쟁
갈등	집단 내 정치적 이해 갈등 - 집단 간 정치적 이해 갈등 집단 내 경제적 이해갈등 - 집단 간 경제적 이해 갈등

자료: 정기환 외(2006).

홍영란 외(2007; 재인용)는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영역 및 수준 설정 등을 통해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사회자본을 개인과 집단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구조(제도),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을 3개의 영역과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21개 내용요소를 제시하였다. 사회자본의 3개영역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신뢰 및 관용성 영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미시적 수준(개인·가정·이웃 등), 중간 수준(학교·지역사회 등), 거시적 수준(국가·국제사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회자본 측정 요소를 영역별, 수준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표 2-7> 홍영란 외(2007)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수준별 영역별	미시적 수준/ 요소 (개인 · 가정 · 이웃 등)	중간 수준/ 요소 (학교 · 지역사회 등)	거시적 수준/ 요소 (국가 · 국제사회 등)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개인의 참여 및 시민의식	학교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국가 수준의 참여 및 시민의식
	가정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이웃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참 여 및 시민의식	국제사회 수준의 참 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친구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학교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가족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이웃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지역사회에 대한 신 뢰 및 관용성	국제사회에 대한 신 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개인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국가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가정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이웃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국제사회와의 네트워 크 및 파트너십

자료: 홍영란 외(2007).

3) 해외연구에 적용된 사회자본 측정지표

외국의 사회자본 측정을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는 World Bank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World Bank의 Bain 외(2002), Grootaert (2001), The World Bank(2002), Grootaert 외(2004), Ibanez 외(2002), Chase & Holmemo(2005), Wetterberg(2004), Knack(2000)의 연구보고서들에서 제시된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관계성,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집합체가 공유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집합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힘이라는 정의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World Bank(2002)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또는 국가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정의와 역할 등을 탐색한 보고서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자본 측정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World Bank 연구물의 사회자본 측정구조

출처	사회자본의 측정구조
Bain 외(2002)	공식 조직에의 참여 즉각적인 집단적 행동 형성에의 참여 위기 시기의 집단적 행동 평상시 집단적 행동 신뢰와 포용
Grootaert(2001)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의 수 3개의 중요 집단의 내부 다양성 여부(8가지 기준으로 평가) 지난 3달간 참석한 모임 수 3개의 중요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도 3개의 중요 집단에 회원이 되기 위해 지불한 회비 3개의 중요 집단에 회원으로서 기요한 날짜 수 회원가입한 집단 중 지역사회 주도인 집단의 비율
The World Bank(2002)	지역수준에서 상호신뢰의 변화정도 공공서비스와 지역수준 기관에 대한 시민평가 시민과 지역수준 기관 간의 관계 지역수준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집합적 행동의 형성 공식적인 자발적 집단에의 참여
Grootaert 외(2004)	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유대 집합적 행동과 협동 사회적 결속과 포용 권한 위임과 정치적 행동
Ibanez 외(2002)	조직에의 참여(membership) 집단적 행동에의 참여 신뢰
Chase & Holmemo (2005)	지역사회 조직의 참여율 집합적 행동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 참여 (마을모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참여정도, 개발계획에 참여 정도 등)
Wetterberg(2004)	참여한 집단의 공식성 수준, 외적 연결성 지수
Knack(2000)	상호믿음 건전한 시민태도와 협력을 나타내는 인구센서스 조사에 대한 응답 자발적 활동(volunteering activity)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자료: 홍영란 외(2007)에서 재인용.

위의 <표 2-8>에서 특히 Bain 외(2002)의 연구를 비롯하여 Grootaert (2001), Ibanez(2002) 등은 개인의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정도 와 참여유형 등을 주요 추정요인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Narayan & Cassidy(2001: 59-102)는 World Bank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분석틀과 지표를 개발한 Narayan(1999)의

연구 성과 및 다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틀 (social capital measurement frame)을 제시하였다. Narayan & Cassidy (2001: 59-102)는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지역사회 공동체성(community solidarity), 의사결정권(empowerment), 그리고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꼽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집단의 특성, 일반화된 규범, 사람들과의 어울림, 일상생활에서의 사회활동, 이웃과의 연계, 자원봉사활동, 신뢰 등의 7개 변수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Narayan & Cassidy(2001: 59-102)의 사회자본 측정 틀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표2-9> Narayan & Cassidy(2001)의 사회자본 측정 틀

구성요소	측정 척도	
집단의특성	집단 구성원 수	현금 출연 정도
	참석 빈도	의사 결정에의 참여
	집단 구성원의 다양성	집단의 경비 출처
일반화된 규범	사람들의 도움정도	사람들의 신뢰정도
	사람들의 공정성	
사람들과의 어울림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정도 사람들 간의 어울림/일치	
일상생활에서의사회활동	일상생활에서의 사회활동	
이웃과의 연계	이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이웃에 요청	
	아플 때 도움을 요청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에 대한 기대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기여
	자원봉사 불참 시 비난	
	누군가를 도운 경험	
신뢰	가족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다른 집단/계급에 대한 신뢰	
	사업가에 대한 신뢰 공무원에 대한신뢰	
	관사/경찰에 대한 신뢰	
	정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자료: Narayan & Cassidy(2001).

미국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중심의 유럽 사회자본 연구 성향과 달리, 참여 중심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접근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 중심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Saguaro 세미나에 기초한 사회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이다. 미국의 Saguaro 세미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학자는 Putnam이며, 따라서 Saguaro 세미나와 SCCBS에서 제시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는 Putnam의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다.

SCCBS의 경우 Putnam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자본 개념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시민참여 등이 중요한 사회자본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SCCBS는 2000년 조사에서 사회자본을 총 8개 영역, 11개 하위요소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8개 영역은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정치참여, 시민 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기부 및 자원봉사, 신앙활동 참여, 시민참여의 평등성이었다. 그리고 8개 영역 중 신뢰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와 인종 간 신뢰로, 정치참여의 경우에는 보수적 정치참여와 진보적 정치참여로, 시민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의 경우에는 각각 시민 리더십과 유관기관 참여의 하위 요소로 구분하여 총 11개 하위 요인으로 측정하였다(홍영란 외, 2007: 재인용).

<표 2-10> SCCBS 사회자본 구성요인 및 측정지표

차원	구성요인	측정지표
신뢰	사회적 신뢰	이웃, 직장동료, 가게 점원, 동료, 종교인, 지역경찰, 타인에 대한 신뢰
	인종 간 신뢰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에 대한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친구관계의 다양성	개인적 친구의 다양성(사장, 생활보호대상자, 동향, 동성애자, 직장동료, 동일종교 신자,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 지역사회리더 등의 11개 항목)
정치참여	보수적 정치참여	지난 주 신문 정치면을 읽은 횟수 선거명부등재여부 최근대통령선거참여여부 정치에 대한 흥미 표현 정치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정도
	진보적 정치참여	데모, 행진집회 등의 집회참여 노동관련 단체 및 인종관련 단체 가입
시민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	시민리더십	공식집단 참여횟수 1년간 클럽활동 참여 횟수 1년간 학교 및 지역문제 공청회 참여 횟수
	유관기관참여	종교집단, 스포츠클럽, 각종 리그, 청년 조직, 주민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집단, 사회복지단체, 자치단체, 예술단체, 민족성이 나타나는 단체, 시민권 관련 단체, 취미 단체, 투자관련 단체, 인터넷 단체 등에 대한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유대	1년간 카드 및 보드게임 참여 횟수 자기집/친구 집에서의 친구 초대, 방문 횟수 친척 방문 횟수
기부 및 자원봉사	기부 및 자원봉사	종교적 기부 여부 건강 및 질병관련 봉사 여부
신앙 활동	신앙 활동 참여	종교단체 가입 여부 종교단체 정기집회 참여 여부 교회의 행사참여 여부
시민참여의 평등	시민참여의 평등	지역별 시민참여정도 차이(평등적 시민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8가지 유형의 시민참여의 인종, 소득, 교육에 따른 차이분석)

자료: SCCBS(2007), 홍영란 외(2007)에서 재인용.

영국은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 ONS)을 중심으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폭넓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왔다. 2001년 11월에는

ONS와 Home Office가 연합하여 사회자본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사회자본의 개념화와 측정에 대한 보다 일관된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표 2-11> 영국의 사회자본 측정 틀

차원	지표의 예
사회참여	소속된 문화적, 여가, 사회적 집단의 수 참여 빈도 및 강도 자원봉사, 참여 빈도 및 강도 종교 활동
시민참여	행사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 지역/국가적 일에 대한 정보 습득 정도 고위 관료 혹은 정치 대표와의 접촉 지역 활동 단체에의 참여 투표 경향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친척/ 친구/ 이웃의 방문 및 대화 빈도 가상 네트워크 정도 및 접촉 빈도 이웃에 사는 가까운 친구/ 친척 수 도움의 교환 인지된 통제와 삶에 대한 만족
상호 호혜성 및 신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다른 수준에 있는 제도에 대한 확신 부탁을 주고받음 공유된 가치에 대한 자각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역의 시설 지역에서 사는 즐거움 범죄에 대한 공포

자료: Rosalyn Harper and Maryanne Kelly(2003).

이어서 ONS 주관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 정부 간 연계를 담당하는 사회자본 작업단(Social Capital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다. 이 그룹은 사회자본의 측정 방식을 조율하고, 부처 간에 사회자본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자본의 정의와 측정 구조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되었다. 그 결과, ONS에서는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해 통합 설문지(Harmonized Question Set)를 개발하였는데, 동 설문지에서 사회자본은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상호호혜성 및 신뢰(reciprocity and trust),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views of the local area)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밖에도 캐나다의 공공정책 연구소(Policy Research Initiative: PRI)와 호주의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 4)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각각 <표 2-12>, <표 2-13>과 같다.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PRI)는 사회자본의 구성단위로서 네트워크의 외형적 속성과 내적 기능성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외형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네트워크의 규모, 네트워크의 밀도, 네트워크의 다양성, 그리고 접촉빈도와 강도 및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공간적 근접성을 측정한다. 네트워크가 작동되어 기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간의 연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자본이 두드러진다.

반면, 호주 통계청에서 시도한 사회자본의 측정은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사회참여와 시민참여라는 사회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 상호 호혜성, 자기 효능감, 협동, 그리고 다양성과 통합성에 대한 수용으로 규범화된 사회자본은 개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다는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표 2-12>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요소			개인 사회자본
			대인간 네트워크
사회 자본의 발생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네트워크의 규모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유형의 관계의 수: 친한 친구 및 가족, 덜 친한 친구와 가족, 안면 있는 관계, 이웃, 동료 등
		네트워크의 밀도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상호관련 정도
		네트워크의 다양성	네트워크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다양성
		접촉 빈도	네트워크 구성원간의 접촉 횟수와 기간
		접촉 강도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강도 및 관계
		네트워크 구성원간 공간적 근접성	정기적으로 면대면 접촉하는 네트워크 구성원
사회 자본의 기능	네트워크의 동력 (작동성)	네트워크 동원: 자원접근 조건	대안적 해결책의 존재 여부, 의존성, 도움 요청에 대한 어려움, 도움 역량의 제한에 대한 평가 등
		동원: 인지된 자원과 동원된 자원의 차이	원조 및 자원에 대한 기대 및 실제로 받는 원조/자원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통합 조건	대인관계 기술 및 일상생활에의 영향
		네트워크의 규범과 규칙	관계의 규범: 문화적 윤리적 차원(신뢰, 소속감, 통합, 관용 등)
	사회자본 작동의 외적조건	구조 및 제도적 양식	사회 통합과 관계 발달을 촉진/저해하는 공식/비공식적 구조

자료: PRI(Policy Research Initiative) project, 2005

<표 2-13> 호주 통계청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

네트워크의 질			
구분		공통의 목적	
신뢰	일반화된 신뢰	사회참여	사회 활동에의 참여
	비공식적 신뢰		사회 활동에의 장애물
	제도적 신뢰		클럽, 조직, 모임에의 참가
	대중교통 이용시 느끼는 안전정도		클럽, 조직, 모임에의 적극적 참여
	길을 걸을시 느끼는 안전정도		활동하는 클럽, 조직, 모임의 개수
	저녁 이후 집에서 느끼는 안전정도		종교 활동 가입
상호 호혜성	시민 참여	시민참여	종교 활동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호혜성에 대한 지각		종교 활동 참여 기간
	시간 혹은 돈의 기부		시민 참여의 수준
자기 효능감	지역사회의 기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쓰는 시간
	지역사회 효능감에 대한 지각		클럽, 조직, 모임에의 참가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클럽, 조직, 모임에의 적극적 참여
	개인적/지역적 효능감		활동하는 클럽, 조직, 모임의 개수
	지역의 의사결정에 대한 효능감		위원회 참여
	효능감에 대한 지각		시민 참여의 장애물
협동	지역사회 지원		클럽, 조직, 모임에의 참여 수준
	빌도 및 개방성		최신 뉴스 및 일에 대한 자각
	수자원 및 전기에 대한 협동적 대화		노동조합 회원
	지역사회 이벤트에 대한 지원		투표
	지역사회 의사결정 수용에 대한 태도		정부대표
	사회적 시민적 협동에 대한 태도		정당의 회원
다양성 과 통합성 에 대한 수용	우정		시민으로서의 중립
	유동성		
	다른 생활습관에 대한 수용		
	문화적 다양성 지원		
	그룹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표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변화 인식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자료: PRI(Policy Research Initiative) project(2005).

박희봉·김명환(2001: 219-237)은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포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고 개념적 분석의 단계를 거쳐 사회자본은 <표 2-14>와 같이 하위 지표들을 통해 측정을 시도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참여와 분리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이 지역사회 참여의 형태로 구현되고, 이들 간의 영향을 통해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그리고 정보공유의 형태로 사회자본이 구체화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표 2-14> 박희봉·김명환(2001)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념	구성요소	지표
사회자본	규범	지역주민의 준법정도/ 법에 대한 인식/ 도덕확립 정도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체 협력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 및 자선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내 갈등에 대한 자체적 해결 정도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친척 및 친구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단체에 대한 신뢰
	집단내 협력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다양한 집단의 의사 존중/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주도
	정보공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정보제공처 확보/ 사회단체의 정보제공 역할/ 언론의 지역문제 해결 역할
지역사회 참여	정치참여	정치 모임 혹은 집회 참여/ 사회문제에 관련 대화 참여/ 청원서제출/ 정당 가입 및 활동/ 대통령 선거 참여/ 국회의원 선거 참여/ 지방선거 참여/ 시민단체 가입
	수평적 단체	체육회 가입단체 수/ 가입한 시민단체 수/ 가입한 학술단체 수
	수직적 단체	가입 종교단체 수/ 가입한 중친회 수/ 가입한 동창회 수/ 가입한 친목회 수/
	자원봉사 참여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시, 월 평균 자원봉사 시간

자료: 박희봉·김명환(2001).

제 2 절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1.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 및 특성

지역사회(community)라는 용어는 학자, 법률가, 행정가, 정치인, 전문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는 특정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특정 종교의 인종집단과 관련이 있으며, 그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심과 이해를 공유하는 이익집단 등의 속성을 반영한다(이형하, 2010: 28).

지역사회의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지방정부를 비롯한 제 민간부문과 시민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인정하고 개인과 사회사회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National Civic League).¹⁾

즉,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사가 형성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공공 토론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느냐의 사회 및 정치과정이 지역사회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돕고, 지역사회를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문제를 다루는지가 결국 그 지역의 성공적인 발전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각 집단의 상호협력, 더욱 나아가서는 각 집단 간의 네트워크와 시민들 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시민참여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 및 조직 간의 협동적이며 집단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행

1) 국가시민연맹 (National Civic League: NCL)은 100명이상의 교육자, 언론인, 비즈니스 리더,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미국 도시들의 미래를 토론하기위해 필라델피아에서 만났을 때, 1894년 창립되었다. 비영리기구이며, 창립되었을 당시 이름은 국가지자체연맹 (영어:National Municipal League)이었고 후에 국가시민연맹으로 개명되었다. 기구는 서로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을 지방 개혁 그룹의 전국망을 창조함으로써 더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시 정부를 만들 착수를 했다.

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서민사회를 건설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용이하게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박희봉, 2006: 1-23).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관련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는 인간을 위한 내재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도구적 가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체제 하에서의 정치과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구적 관점에서 자발적 결사체에서의 시민참여는 시민들 사이의 개인 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공식적 정치과정에서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putnam, 1993b: 35-42).

이와 함께 폭넓은 시민참여와 심의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의 내재적 가치는 시민참여가 본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므로 주로 시민공화주의자와 공동주체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진다(배귀희·임승후, 2009: 1426).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확고한 주관과 개혁의지를 갖고 문제를 지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시민에 의한 사회참여는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된다. 참여란 사람들이 개인적 만족감과 공동의 정신을 증진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우 결정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높아져 내용을 시행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참여의 효과 때문이다,

참여는 사람들이 거대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김종해, 1995: 7-9)

참여는 행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에 기반하고, 강한 네트워크, 강한 지역사회연대감, 강한 지역사회감, 지역사회에 대한 믿음 및 자발적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증가하고, 또한 실제 삶의 활동에서 잠재적 유대관계를 실현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회적 행사 참여, 직업적 역할

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뿐만 아니라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 등의 일대일 대면적 원조 모두 지역사회 참여의 예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참여도 주민들이 형성하는 문화인 것이다(강대인·류기형, 2007: 33-34).

사회참여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복지를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수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참여를 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치참여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생활양식, 가치의 문제로까지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삶에 있어서의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이 융합되고, ‘정치적’이라는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기 때문이다(Offe, 1985).

사회참여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Putnam(1993b: 35-42)은 참여를 사회자본 효과의 구체적 지표로서 자발적인 결사체 참여인 시민참여와 정치참여의 두 차원으로 분리 개념화하였고, Bukov 외(2002: 510-517)는 사회참여를 시간의 공유, 기술의 공유, 사회적 지식과 자격의 공유에 따라 집합적, 생산적, 정치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의 구성요소로 정치참여, 단체참여(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2. 지역사회참여의 구성요소

지역사회참여의 유형은 학자나 연구주제별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치참여, 단체참여(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정치참여

시민참여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역동적인 참여가 정치참여이다. 성인

이면 누구나 각종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며 선거와 관련된 각종 모임과 언론보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와 같은 관례적인 참여보다는 다른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위와 침묵 등 비관례적 참여가 부쩍 늘고 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혁명 덕분에 사이버 정치참여가 확대되면서 전자 민주주의 또는 사이버 민주주의 논의와 함께, 미국 등지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로 사이버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주성수, 2004: 74).

정치참여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개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와 연관을 맺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의 개념에서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이슈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인지적 차원에서부터 집회나 선거유세에 참가하거나 투표하는 행위, 더 나아가 각종 정치적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행동적인 차원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박선희, 1998: 24-38). 여기에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등에 투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치참여의 유형 중 관례적 정치참여와 비관례적 정치참여를 살펴보면, 관례적 정치참여의 개념은 “정부 지도자의 선택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보다 직접적인 목표를 가진 사적 시민들이 취하는 법률적 활동”이라고 정의된다(Verba, Nie & Kim 1978: 46).

비관례적 정치참여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정치참여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관행적인 정치참여 유형이 되는 토론회와 집회 참여뿐만 아니라 비관행적인 캠페인, 서명운동, 불매운동, 시위, 농성에 참여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관례적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이념들과 현실정치 사이의 갭(gap)에서 등장한다.

유크너(Euchner, 1996: 16)는, “한 유형의 정치가 실패하면 다른 유형의 정치가 등장해 사람들과 집단들의 기본적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전제하면서, 주류 일상적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비주류 ‘비일상적 정치’가 등장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비일상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접근을 한다. 비일상적 정치는 정치체제가 무시하는 이슈들을 추진하도록 강요하고, 공식적 제도권 밖에서 작용하며, 일상적 정치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무수한 운동과 전략들을 향유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심사숙고에 필요한 제도적 구조와 연계를 결여하고 있다(Euchner, 1996: 20). 그에 의하면 기존의 정치구조와 행태들은 일상적 정치의 가능성을 제한시킨다. 체제의 기본 법칙이 되는 일인일표, 간접적인 선거에 의한 정부기관 통제, 관료와 법원의 협의적이고 기술적 논리 등은 시민들이 일상적 정치에서 자기의사를 표현하고 정치행동을 취하는 데 제약을 가한다. 일상적 정치는 시민들에게 예-아니오 선택만을 주지만, 비일상적 정치는 보다 유연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주성수, 2004: 80-81).

이는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드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치참여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로 하여금 시위나 집회와 같은 비전통적인 의미의 시민참여 활동에 한해서 이를 조장하거나 특수한 환경 혹은 일부 집단에 한해서만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단체참여

사회단체참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 가운데 ‘결사의 욕구’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발적 사회성을 요구한다(김상돈, 2006: 16).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있어 보다 수월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단체참여를 일반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체참여는 Putnam(1993b: 35-42)에 따르면 시민참여는 수직적 단체와 수평적 단체 참여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다. 수직적 단체는 혈연과 같은 일차적 관계망을 토대로 단체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평적 단체는 사회의 이차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수직적 단체와 수평적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은 서로 다르며 그로인한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Granovetter, 1985: 481-510).

다시 말해, 근대적 형태의 사회조직 형태와 전근대적 사회조직 형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차이가 예상된다(박희봉, 2006: 1-23). 또한 박희봉(2002: 221-237)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취미단체 참여, 지역활동단체 참여, 노동운동단체 참여 및 친목단체 참여로 사회참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인과변인이 라면, 사회단체참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연결망의 기능적 효과(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사이의 매개변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참여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구성원과의 대면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성립되고,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사회적 행위가 형성·발전되기 때문이다(김상돈, 2006: 26-30).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부르디외의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 콜만의 합리적 선택론, 그라노베터의 연결망 형성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Bourdieu(1986: 241-258)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자본으로의 환원론을 제시하면서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을 제시하였다. 자기이해와 단일동기론은 합리적 선택론과 형태론을 묶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궁극적인 행위동기가 되고 모든 사회적 상황은 경제적 의미에서의 이해추구로 귀속된다고 가정한다(김상돈, 2006: 17).

예컨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에 대한 인과기제의 관점에서 파악한 사회단체참여는 사회연결망의 한 범주로서 약한 연계로 작동된다. 그 이유는 사회단체의 경우 대체로 열성적으로 상근하는 사람들보다는 형식적으로 회원등록 및 일 년에 한두 차례 개최하는 총회에서 만나는 등 아주 느슨한 관계로 형성되었기에 교환의 빈도는 낮으며 주기도 길기 때문이다.

또한 각기 다양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원들의 동질성이 낮은 상태이고, 서로 교환할 자원의 중첩성도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은 사회적 지원을 약한 연계에 귀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김상돈, 2006: 19).

2) 연결망의 유형에 대해 그라노베터(1973: 1360-1380)는 인지적 성격(시간의 양, 서로 주고받는 서비스)과 정서적 성격(정서적강도, 친밀성)을 하나로 조합해서 보고 있다.

3) 자원봉사참여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또한 사회자본의 원동력이 되며 사회참여의 주요 유형이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정치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가 제시하는 시민권과 시민의 역할에서 중시되는 시민참여 활동이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대신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대시켜 시민들이 자율적 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참여 유형이다. 또 앞에서 설명한 사회자본 이론들도 기부와 자원봉사를 사회자본의 생산을 위한 소중한 시민참여 활동으로 간주한다(주성수, 2004: 30).

그럼에도 기부와 자원봉사는 일부 시민들의 참여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계층을 초월해서 더불어 시민사회를 건설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계층들의 참여에 의해 그렇지 못한 계층들을 위한 활동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이상적인 시민사회 참여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스카치폴(Skocpol, 1999b: 500)은 무수한 지지집단과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에 주목해서, 이런 활동들도 소외층 등의 대상 집단과 “공동으로 하는 활동”(doing with)보다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doing for)에 크게 치우쳐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 사회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풀뿌리 조직들의 활동에도 일반시민의 참여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과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고소득자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한다.

자원봉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Ellis & Noyes, 1990).

첫째, 자발적 선택(choose)으로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둘째,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다. 셋째, 무급성(without monetary profit)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넷째, 기본적 의무를 초월하는 것(beyond basic obligations)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의무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 투표하거나 자신의 직업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시

민으로서의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이런 의무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욕구이며 자연스런 행위임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공동의 행복을 지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민주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 해결하는 노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보수, 지위, 명예)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타적 활동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 자발성, 이타성(복지성), 무보수성, 실천성, 지속성을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이 둘의 관계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개인을 분석 단위로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것(volunteering)은 신뢰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연결망의 형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자본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신뢰 및 신뢰를 하위개념으로 설정하는 사회자본이 물질기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선행요인임을 보고한다.

한편 Gachter & Herrmann & Thoni(2004: 505-531)는 러시아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 및 신뢰태도와 협력적 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신뢰태도에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있고, 신뢰태도는 자발적 협력(voluntary cooperation)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해 공정하다고 지각하고, 타인을 기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믿을수록 더욱 더 공동체에 기여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의 연구는 사회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인 협력과 기여(contributions)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조건변수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사회를 위한 기부 등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제 3 절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의 관계

1.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동과정 속에서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수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요구, 필요, 기대들도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사회변동과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요구를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은 이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되었고 규모의 양적 팽창을 갖게 되었다. 또한 행정은 이질적인 이해를 조정하고 공익을 실천하며,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은 양적·질적으로 확대 및 다양화되어 시민생활의 각 분야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의 재량범위가 확대되고 행정권의 비대화가 초래됨과 아울러,³⁾ 행정권한의 남용을 비롯한 각종 역기능이 높아지게 되었다(구자용, 1995: 130-131).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민주국가들은 이러한 행정을 통제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내지 방식을 설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법 및 사법 통제, 행정부의 내부통제, 정당, 이익집단, 여론 등을 통한 민중통제 등이 행해지게 되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한계성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종래의 방식이 무력해짐에 따라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 또는 제시되었는데, 근래에 나타난 것이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이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관료제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시민이 직접 참가·관여하는 것으로써 현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참여는 정부가 경쟁적인 시민의 필요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respond)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 대두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의 대두는 실제적인 시민계층의 불만, 즉 일부 기득권을

3)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국가는 행정국가 또는 적극국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4) 마인저(L.Mailzer)는 관료제의 책임성 확보수단으로서 규모의 축소(reduction in size), 강화된 법의 지배(increased rule of law), 전문성에 의거한 자기통제(self-control via professionalism & expertise), 정치적 감시(political oversight) 등을 제시하고 있다. Political Bureaucracy (Glenview: Scott, Foresman, 1973), pp. 13-14.

보유한 계층을 제외한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대의체제(代議體制)가 자기들에 공평한 이득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기존 제도 하에서는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⁵⁾ 그리고 시민참여는 ① 이렇게 소외된 시민들, 특히 빈자계층(貧者階層)을 기존제도에 포함시켜 참여케 하는 사회치료(sociotherapy)적인 면에서, ② 빈자계층에게 직업을 제공해주는 주요 방법이란 면에서, 그리고 ③ 빈곤퇴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달성하는 하나의 유익한 수단이라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나타나기도 한다.⁶⁾

이렇게 시민참여가 관료제의 대표성(代表性: representativeness)과 대응성(對應性, responsiveness)을 높이며 행정재량의 남용 여부를 살피는 데 기여하는 반면, 정책결정이나 시행에 시민이 관여하는 것은 관료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근래에 대두된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⁷⁾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간접적인 참여방식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요구되고 대두하게 되었다.

참여의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많다. 몇 가지 방안(alternative)이 있는데 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정책결정구조에 참여, ② 자문위원회를 통한 참여, ③ 관련기구의 직원이 되어 참여, ④ 시민단체를 형성하여 관련기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 등이다. 또한 참여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특히 사업수준(program level)에서 나온 것으로 관련기구나 사업의 운영위원회에 빈민층의 대표가 참여하거나 빈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더 나아가 빈민층, 행정기관, 관련민간단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세발의자(tree-legged stool)방식 등이 있다.

근래의 경향은 도시 또는 지역에서의 시민참여, 특히 빈민계층이나 흑인

5) 이러한 견해는 카우프만(Kaufman)과 리델(Riedel) 등이 제시하고 있다.

H. Kaufman.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Power," F. E. Rourke(ed.),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Boston: Little, Brown & Co., 1972), p. 386; J. Riedel, *op. cit.*, p. 212

6) S. M. Miller & Rein, "Participation, Poverty, and Administration," PAR, Vol. 29(199)참조.

7) 이것은 또한 신민주주의(new democracy) 또는 신정치(new politics)라고도 불린다.

들의 직접적인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는 사회적으로 다분야에 파급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이 대학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시민참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래에는 행정의 분권화와 자치운동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요구는 이제 빈곤퇴치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주택공급이나 임대계획·도시계획의 수행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분권화와 연결하여 지역사회(communitiy)나 마을(neighborhood)의 차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지역자치(communitiy control)나 이웃정부의 경향도 대두되고 있다. 시민의 행정참여는 또한 미국에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특히 지방 및 지역 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제시·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관료의 정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책임을 확보 내지 향상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주 정부 하에서 관료는 시민에 봉사하며 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구현해야 하는 것으로 시민-관료의 관계, 특히 관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관료들이 시민참여를 그들의 정책결정상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여기는 경우 시민참여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관료의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전문성, 절차성(節次性), 정규성(定規性) 등은 시민참여의 정도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시민들이 가능한 한 관료와 동등한 정도의 자원을 보유 또는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민참여의 구현에 중요한 것이다(구자용, 1995: 139-146).

이러한 시민참여는 대중사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시민의 불이익이나 불만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시민참여는 그 수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민의 의사와 요구가 보다 충실하게 반영·실현되는 데 기여하며, 행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이 직접 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내지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또한 행정재량의 행사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현재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시민참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시민참여는 민주정부와 행정,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행정은 시민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수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과 시민은 신뢰적이고 건전한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또한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행정이 갈수록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에 입각하여 수행되므로 그만큼 시민은 행정에서 멀어지고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더욱 행정과 시민의 상호관계와 행정의 민주화가 강조되는 것이다(구자용, 1995: 154-163).

2.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주민과 정치인, 관료를 매개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시민들이 정부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과 잠재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또 시민참여의 한 형태가 바로 시민접촉이며 이는 시민과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로 볼 수 있다. 기존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참여는 사회자본의 원천이며, 설명적 결정요인으로 또 다른 독립변인인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사회자본의 결과로서 시민접촉을 논의할 수 있다. 송건섭(2009: 116-117)은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자본, 시민접촉의 관계성 파악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지역사회참여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제외한 사회자본 구성요소는 시민접촉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가 시민접촉에 긍정적(+)이라는 Putnam(1993a: 82)의 주장과는 다소 다르지만,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Newton(1999: 10)의 주장과는 부합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참여는 사회자본을 통해 시민접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자본 형성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시민접촉 수준도 더욱 높아 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송건섭, 2009: 117).⁸⁾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시민참여를 사회자본과 연결시키고 있는 논의들은 주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네트워크와 규범에 의해 사회적 결속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자본이 형성된다는 것이다(김종미, 2004: 142-154). 즉,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단체 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 간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의 규범을 성장시키고, 조정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성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신뢰와 주민 간의 연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는 사회단체 생활이 사회자본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참여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학자들의 연구와 둘 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지역 시민참여와 사회자본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연구로써, Berman(1997)은 시민사회단체 참여활동이 개인 간의 단절을 원활히 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며 사회자본 형성에 중요한 공동 이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Putnam(1993a: 82)의 연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자발성의 의한 사회적 연결과 사회적 신뢰, 시민참여, 민주적 거버넌스가 모두 깊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특히 Booth와 Richard(1998)은 남미 6개국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동과

8) 미국의 사회자본구축정책을 연구한 홍현미라(2006)는 지역사회 자본구축의 지향점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자생력 생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들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적 요소회복과 재생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외에도 사회복지교육, 신뢰, 상호 호혜성 구축, 시민참여, 시민참여권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요소를 각 요인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한 후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Veenstra와 Lomas(1999)는 효과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시민 욕구의 반영, 정책수행, 재정적 책임, 행정효율성 등과 신뢰, 참여 및 주체성, 시민결사체, 시민참여, 협동적 문제 해결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시민참여와 사회자본 간에 관계를 암시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와 사회참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써, Putnam(1993a: 82)은 정당이 집단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가입은 시민성과 상관이 있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으며, Berman(1997)은 1870년대와 1920년대의 독일에서처럼 시민사회가 왕성하게 발전하였지만 이것이 민주적 사회자본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국가제도의 불안 속에서의 사회단체 발달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위협할 수 있으며, 특정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장치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박희봉, 2006: 1-23).

국내의 사회참여와 사회자본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희봉(2006: 1-23)은 시민참여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시민참여 유형 중 정치적 참여가 사회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델1에서 $p < .05$ 수준에서 인터넷 정부정책 참여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정책에 관여하는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실질적인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유형 중 비정치적 참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모델2에서는 인터넷 신문과 공공목적 단합활동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신문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공공목적 단합활동에 참여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의 인식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치적 참여와 비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로 통제하여 분석한 모델 3의 결과, 인터넷 정부정책 참여와 공공목적 단합활동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정부정책에 참여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공공목적 단합활동에 참여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자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2006: 1-23)은 또한 여성의 시민참여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원결사체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으며 여성은 덜 형식화되어 있는 결사체유형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별로 구분하여 결사체 유형에 참여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의미하는 결사체유형1의 참여에서 남성의 경우 연령과 교육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연령과 교육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육아에 매여 있는 시기보다는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기에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결사체유형1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별에 차이에 따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송건섭(2009: 99-121)은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이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지역사회참여는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구축정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신뢰 규범은 시민접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00$),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630$).

김창학(2010: 재인용)은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가 사회자본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참여요인 중 지역참여와 정치참여, 단체참여만이 정보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요인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참여와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사회 참여요인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참여와 주민자치센터 이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재(2004: 3-35)는 한국 사회운동단체의 조직과 사회자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사회참여도와 신뢰와의 분석결과, 진보가 보수에 비해 정당 참여도가 높으며 봉사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진보집단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약 72%였지만 보수집단은 약 27%로 진보집단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명, 스티커 붙이기 등 사회 캠페인 활동에서는 진보집단이 많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이것은 진보집단이 정치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펼칠 수 있는 서명, 스티커 붙이기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진보집단의 높은 정치활동 참여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신뢰도에서 진보단체는 사법부, 군대, 경찰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으며 보수집단은 특히 군대와 경찰과 같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2008: 60-82)는 사회자본과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매체환경에서 개인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의 정치참여 연구들이 대부분 선거 참여로서 투표에 초점을 정치참여 유형을 구분한 것에 비해 토론참여, 온라인 댓글, UCC활동, 정치모금, 자원봉사 등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텔레비전 시청율, 인터넷 이용량, 인터넷 신문 이용량, 보도프로그램, 경성뉴스, 휴대전화 오락적 이용, 온라인 연결망, 오프라인 연결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성뉴스가 정치참여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휴대전화 정보적 이용, 오프라인 연결망, 텔레비전 시청율 등의 순으로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조사 설계

제1절 분석의 틀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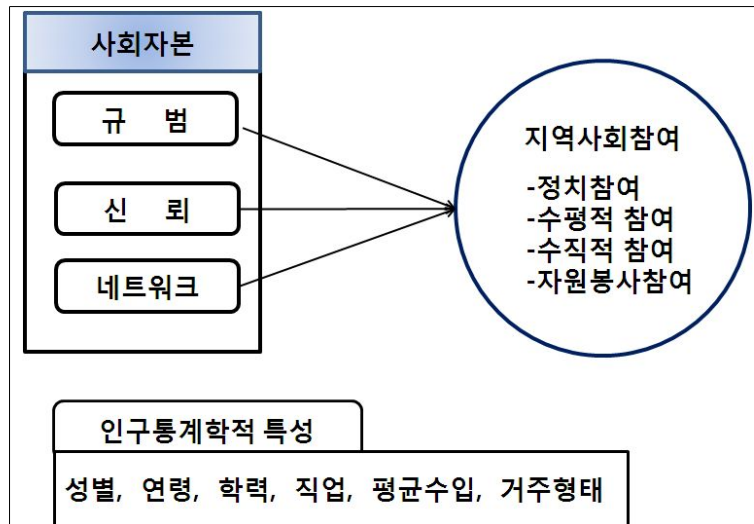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자본 요인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세부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을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3가지 하위변수로 구분하고,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 요인은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의 4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의 3가지 하위변수 각각의 요인들이 지역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하위변수들 중 어떠한 요소들이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이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선정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의 총 6가지 요소에 따라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참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연구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지역사회참여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된 지역사회참여는 지역단체의 주체로써 개인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요인의 구성요소로써,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의 4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사용되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정치참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와 연관을 맺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써, 정치적 모임에 참석,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적극성, 기고 또는 서명행위,

정당에의 간섭, 선거의 참여로 평가되어진다.

(2)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평적 단체는 사회의 이차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시민단체의 가입, 지역사회 체육회 활동참여, 지역사회단체 및 이익집단의 참여로 평가된다.

(3)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단체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일차적 관계망을 토대로 단체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단체,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등의 활동의 참여여부로 평가된다.

(4) 자원봉사참여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타적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활동의 개발과 탐색 정도로 평가되어진다.

2) 독립변수 :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주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또는 상호 면식과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획득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적용·활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상호이익, 즉 지역복지를 위해 협력과 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다차원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가치이자 실천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통해 지역사회주민들 간에 공유되는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규범

규범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가의 법률이나 조직의 규칙 등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유된 언어와 행동양식, 조직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교환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에 상황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는 조직의 문제해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결합과 축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2) 신뢰

신뢰(trust)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신념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한다. Zucker(1986: 53-111)는 신뢰를 사회의 모든 교환관계를 이해하는 기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학적으로 신뢰는 교환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감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행위 ‘본 연구에서 볼 때, 시민적 참여와 네트워크의 형성유지, 호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들’을 특성지우는 일반적 틀이 된다.

(3) 네트워크

네트워크(network)는 개인이 일련의 사회적 관계의 잠재적 축적과정을 거쳐 형성하는 개인 및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 연결 형태로 개념화 한다. 이는 개인이 관련되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관계들의 집합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나아가 보다 광의의 사회적 공간에서 개인이 갖는 결사의 배치와 유형으로 특성화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주민 개개인이 직접 유지하고 있는 접촉과 접촉망, 그리고 그러한 연결 구조를 통해 사회자본의 축적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의 빈도, 친근성, 관계의 지속성이 고려된다. 또한,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갖는 내재적 가치를 구조적 속성(structural properties of networks)으로 보고,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기능하면서 발현되는 가치로서 기능적 속성(functional properties

of networks)으로 볼 때, 네트워크가 갖는 공식성과 비공식성에 따라 이들 속성은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상이하게 발현되기도 한다(Franke,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 수준으로 조작화 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 총 6가지 요인으로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에 관련이 크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제2절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재확인하고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참여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5.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평균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6.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지역사회참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지역사회참여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지역사회참여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지역사회참여는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지역사회참여는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지역사회참여는 평균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지역사회참여는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자원봉사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절 설문지 구성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위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록에 첨부된 것과 같은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표본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평균수입, 직업, 거주형태로 6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신뢰와 규범으로 세 가지 하위변수를 구성하여 10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끝으로 종속변수로서 지역사회참여는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로 4가지 하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순서대로 5문항, 4문항, 4문항, 2문항으로 15개 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질문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설문지의 구성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

구 분	측 정 변 수	설문항목	문항 수
I. 사회자본	규범	1-4	4
	신뢰	5-7	3
	네트워크	8-10	3
II. 지역사회참여	정치참여	11-15	5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16-19	4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20-23	4
	자원봉사참여	24-25	2
III.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	26-31	6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지역사회 복지수준과 지역주민의 사회자본 형성수준, 그리고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간의 관계에 주목한 본 연구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내의 8개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와 기타 관공서 종사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완료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 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설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조사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68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36부를 제외한 432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설문지 회수율 88.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위와 같은 표본선정과 자료수집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서울시 내의 8개 사회복지관과 기타 관공서 종사자 및 이용자
조사방법	•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0년 7월 15일 ~ 8월 4일(20일간)
표본크기 및 회수율	•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68부를 회수함(회수율=90%) • 468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32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함

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변인에 따른 지역사회참여요인과 사회자본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 이상의 평균차이 검증방법인 일원변량분석(General Linear Model : 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섯 째, 지역사회참여요인을 종속변수로,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OLS)을 통하여 각각의 하위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5.0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1절 조사도구의 검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에 있어서의 일치성, 일관성, 예측력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해서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적일관성 검증법으로 Cronbach's α 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설문문항을 이용하는 경우 각 항목별 평균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는 검증방법이다.

여기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로써 신뢰도 계수 알파(α)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변수들 간의 평균 상관관계에 근거해 검사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 α)는 0과 1사이의 수로 이루어지며 1에 가까워질수록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동일하기에 신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신뢰도 계수는 0.6 혹은 0.7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 간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뢰도가 검증된 선행연구들의 문항을 참고로 하였으며, 약 50부 가량의 Pre-test를 통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삭제하는 등의 문항 조정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변수에 따른 신뢰도 검정 결과, 독립변수로 선정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는 각각 .790, .870, .779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인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는 각각 .762, .778, .739, .875의 신뢰도 계수를 보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설문 문항

은 모두 신뢰도 계수 0.7을 넘어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도구가 사용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 변수별 신뢰도 계수

변수명		하위변수	설문번호	설문항목	신뢰도 Cronbach's α
독립 변수	사회 자본	규범	1-4	4	.790
		신뢰	5-7	3	.870
		네트워크	8-10	3	.779
종속 변수	지역 사회 참여	정치참여	11-15	5	.762
		수평적 지역사회단체 참여	16-19	4	.778
		수직적 지역사회단체 참여	20-23	4	.739
		자원봉사 참여 여부	24-25	2	.875

제2절 표본의 특성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서울시 내의 8개 사회복지관과 기타 관공서의 종사자, 그리고 기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설문지를 제외한 432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의 6가지 요소에 따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성별

본 연구의 표본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184명으로 전체 표본 수 432명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248명으로 전체의 57.4%로 남성보다 다소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별의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성별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 성	184	42.6	42.6
여 성	248	57.4	100.0
총 계	432	100.0	

2) 연령

연령의 경우 50~59세의 연령대가 111명으로 전체 대비 25.6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30~39세와 40~49세의 연령대가 각각 2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경우 22명으로 전체 대비 5.09%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60세 이상의 경우를 제외한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의 연령대는 각각 20% 초반의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3> 연령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20~29세	99	22.92	22.92
30~39세	100	23.15	46.06
40~49세	100	23.15	69.21
50~59세	111	25.69	94.91
60세 이상	22	5.09	100.00
총 계	432	100.00	

3) 최종학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최종학력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졸의 경우가 180명으로 전체 432명 대비 41.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고졸이 35.42%, 전문대졸이 15.28%, 대학원졸 이상이 7.64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약 65%로 본 연구의 표본의 전반적인 최종학력 수준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4> 최종학력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고졸	153	35.42	35.42
전문대졸	66	15.28	50.69
대졸	180	41.67	92.36
대학원졸 이상	33	7.64	100.00
Total	432	100.00	

4) 직업

직업의 경우 사회복지관에서 설문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복지기관 종사자가 190명으로 전체 432명 대비 43.98%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표본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기타 13.19%, 자영업 10.88%, 회사원 10.19%, 전문직 9.49% 순의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무직 1.85%, 공무원 5.09%, 주부 5.32%의 순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4-5> 직업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공무원	22	5.09	5.09
자영업	47	10.88	15.97
회사원	44	10.19	26.16
복지기관종사자	190	43.98	70.14
전문직	41	9.49	79.63
주부	23	5.32	84.95
무직	8	1.85	86.81
기타	57	13.19	100.00
Total	432	100.00	

5) 평균수입

표본의 평균수입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보이는 집단이 143명으로 전체 432명 대비 33.1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인 122명으로 28.24%, 200~300만원 미만이 15.2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평균수입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0만원 미만	122	28.24	28.24
100~200만원 미만	143	33.10	61.34
200~300만원 미만	66	15.28	76.62
300~400만원 미만	55	12.73	89.35
400~500만원 미만	34	7.87	97.22
500만원 이상	12	2.78	100.00
Total	432	100.00	

6) 거주형태

거주형태는 자가 59.26%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세, 월세, 기타, 임대아파트, 사글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와 전세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표본의 거주형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7> 거주형태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가	256	59.26	59.26
전세	136	31.48	90.74
월세	20	4.63	95.37
사글세	1	0.23	95.60
임대아파트	8	1.85	97.45
기타	11	2.55	100.00
Total	432	100.00	

2. 변수의 기술 통계치

설문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평균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값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25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의 표본 432명의 각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8>과 같다.

<표 4-8> 설문문항 응답 값의 기술통계 분석

설문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규범1	432	1	5	3.07	0.873
규범2	432	1	5	3.28	0.884
규범3	432	1	5	3.98	0.802
규범4	432	1	5	3.02	0.881
신뢰1	432	1	5	2.81	0.957
신뢰2	432	1	5	2.89	0.902
신뢰3	432	1	5	3.10	0.829
네트워크1	432	1	5	3.78	0.790
네트워크2	432	1	5	3.63	0.937
네트워크3	432	1	5	3.44	0.876
정치참여1	432	1	5	1.92	0.938
정치참여2	432	1	5	2.48	0.965
정치참여3	432	1	5	2.03	0.980
정치참여4	432	1	5	2.15	0.946
정치참여5	432	1	5	3.52	1.102
수평적 참여1	432	1	5	2.30	0.922
수평적 참여2	432	1	5	2.47	1.001
수평적 참여3	432	1	5	2.52	0.973
수평적 참여4	432	1	5	3.35	0.896
수직적 참여1	432	1	5	3.19	1.165
수직적 참여2	432	1	5	3.40	0.901
수직적 참여3	432	1	5	3.44	0.914
수직적 참여 4	432	1	5	2.62	1.028
자원봉사 참여1	432	1	5	3.18	1.052
자원봉사 참여2	432	1	5	3.28	1.003

분석결과, 규범 3 문항인 국민의 효에 대한 문항에 대해 평균 3.98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1 문항인 친구 존재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평균 3.78로 높은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관련문항과 규범에 관련한 문항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1 문항인 선거 때 정치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하는 가를 묻는 문항에 있어서는 평균 값 1.92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 관한 문항은 대부분 다른 문항들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참여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재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설정한 6가지 변수들에 따라 사회자본, 지역사회참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지역사회참여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와 상호 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의 6가지 요소에 따라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1) 사회자본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의 3가지 변수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각 집단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자본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사회자본과 성별

가장 먼저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가 조상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하나인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1>인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3가지 하위 변수와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9>와 같다.

<표 4-9> 사회자본과 성별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성 별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규범	남 성	184	13.027	2.757	-2.150	.032
	여 성	248	13.589	2.630		
신뢰	남 성	184	8.870	2.570	.512	.609
	여 성	248	8.750	2.268		
네트워크	남 성	184	11.234	2.238	3.181	.002
	여 성	248	10.569	2.080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에서 규범($p<.032$)과 네트워크($p<.00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p<.05$ 에서 성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는 규범과 네트워크에서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규범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평균 값(13.589)이 남성의 평

균 값(13.02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범 이행 정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남성의 평균 값(11.234)이 여성보다 (10.5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여성보다 많은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되는 남성에게 높게 인식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분석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과 네트워크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성과의 동등한 사회자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여성들을 위한 보다 다각도적인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609$). 즉 신뢰 변수는 성별과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자본과 연령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의 3가지 하위변수와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는 <가설1-2>에서의 사회자본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한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세 가지 변수와 연령 간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10>과 같다.

<표 4-10> 사회자본과 연령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연 령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규범	20~29세	99	13.404	2.462	2.010	.092
	30~39세	100	13.090	2.927		
	40~49세	100	13.040	2.562		
	50~59세	111	13.559	2.579		
	60세 이상	22	14.636	3.458		
신뢰	20~29세	99	7.737	2.431	10.061	.000
	30~39세	100	8.590	2.075		
	40~49세	100	9.070	2.226		
	50~59세	111	9.396	2.451		
	60세 이상	22	10.318	2.297		
네트워크	20~29세	99	10.707	2.421	.332	.857
	30~39세	100	10.780	1.862		
	40~49세	100	10.990	2.149		
	50~59세	111	10.865	2.242		
	60세 이상	22	11.136	2.167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규범과 네트워크는 각각 유의확률 $p<.092$, $p<.857$ 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인 $p<.05$ 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하나인 신뢰는 유의확률 $p<.000$ 으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정부 혹은 주민자치에 대한 신뢰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60세 이상이 평균 값 10.3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59세가 9.396, 40~49세가 9.0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연령대에서 7.7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회자본 요소 중 신뢰는 낮아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발생한 쇄고기 파동 때와 같은 반 정부시위에 있어서 참여 인구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낮은 연령대에 대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신뢰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저 연령대에 대한 신뢰 형성이 이루어질 때만이 정부의 정책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사회자본과 최종학력

다음은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하나인 최종학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앞에서 설정한 <가설1-3>에서의 사회자본이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3가지 변수와 최종학력 간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사회자본과 최종학력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최종학력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규범	고졸	153	13.418	2.964	1.005	.391
	전문대졸	66	12.924	2.309		
	대졸	180	13.350	2.439		
	대학원졸 이상	33	13.879	3.370		
신뢰	고졸	153	8.667	2.365	.778	.507
	전문대졸	66	8.758	2.380		
	대졸	180	8.828	2.375		
	대학원졸 이상	33	9.364	2.737		
네트워크	고졸	153	10.464	2.204	3.927	.009
	전문대졸	66	10.742	1.940		
	대졸	180	11.072	2.125		
	대학원졸 이상	33	11.667	2.420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규범과 신뢰의 유의확률은 각각 .391, .507로써 본 연구에서 유의수준으로 설정한 $p < .05$ 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범과 신뢰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네트워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하나인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9$).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평균 값 11.667, 대학교 졸업이 11.072, 전문대 졸업이 10.742, 고졸 이하 10.4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최종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자본 요소 중 네트워크 변수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4) 사회자본과 직업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가 조상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하나인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설1-4>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3가지 하위변수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직업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12>와 같다.

<표 4-12> 사회자본과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직 업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규범	공무원	22	13.909	2.467	1.304	.246
	자영업	47	12.532	2.457		
	회사원	44	13.182	2.385		
	복지기관종사자	190	13.553	2.634		
	전문직	41	12.780	2.651		
	주부	23	13.783	3.384		
	무직	8	13.500	3.295		
	기타	57	13.474	2.977		
신뢰	공무원	22	11.545	1.683	7.475	.000
	자영업	47	8.617	2.132		
	회사원	44	9.136	1.960		
	복지기관종사자	190	8.563	2.231		
	전문직	41	9.488	2.357		
	주부	23	9.391	3.173		
	무직	8	7.500	1.604		
	기타	57	7.877	2.578		
네트워크	공무원	22	11.909	1.849	4.412	.000
	자영업	47	10.617	1.726		
	회사원	44	11.614	2.014		
	복지기관종사자	190	10.389	2.115		
	전문직	41	11.878	2.052		
	주부	23	10.696	1.893		
	무직	8	10.625	1.408		
	기타	57	10.947	2.689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규범과 직업 간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p < .246$). 즉 직업에 따른 규범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와 네트워크 변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p < .05$ 보다 낮은 $p < .000$ 의 유의확률을 나타냈다. 이는 신뢰와 네트워크는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의 경우 공무원이 평균 값 11.5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직이 평균 값 9.48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에 의한 결과로써 자신들이 근무하는 행정부 혹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무직자의 경우 사회자본 중 신뢰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자본으로써의 신뢰 형성을 위해 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신뢰 변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평균값이 11.9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직(11.878), 회사원(11.614)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사회자본과 평균수입

다음은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에 대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 하나인 평균수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5>인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평균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3가지 하위변수와 평균수입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1-5>를 검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13>과 같다.

<표 4-13> 사회자본과 평균수입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평균수입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규범	100만원 미만	122	13.451	2.918	1.584	.163
	100~200만원	143	13.476	2.757		
	200~300만원	66	12.955	2.440		
	300~400만원	55	12.909	2.570		
	400~500만원	34	13.353	2.200		
	500만원 이상	12	15.000	2.374		
신뢰	100만원 미만	122	8.254	2.551	11.541	.000
	100~200만원	143	8.350	2.274		
	200~300만원	66	8.803	1.850		
	300~400만원	55	9.618	2.289		
	400~500만원	34	10.176	2.052		
	500만원 이상	12	12.083	1.311		
네트워크	100만원 미만	122	10.721	2.437	14.635	.000
	100~200만원	143	10.245	1.969		
	200~300만원	66	10.576	1.737		
	300~400만원	55	11.291	1.729		
	400~500만원	34	12.529	1.674		
	500만원 이상	12	14.167	1.193		

평균수입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결과, 신뢰와 네트워크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p<.05$ 보다 낮은 $p<.000$ 으로써 통계적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즉, 사회자본은 조사대상자의 평균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혹은 주민자치 등에 대한 신뢰정도를 의미하는 신뢰 변수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083). 400~500만원의 평균수입의 경우 평균값 10.17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400만원, 200~300만원의 평균수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의 평균수입은 사회자본으로의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수입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신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적 혹은 공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자본으로의 네트워크는 신뢰와 마찬가지로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 수입의 경우 평균값이 14.1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0~500만원의 평균수

입(12.529), 300~400만원의 평균수입(11.291), 200~300만원의 평균수입(10.5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하나인 규범 변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p < .05$ 보다 높은 $p < .163$ 으로 규범 변수의 평균수입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자본과 거주형태

<가설1-6>에서와 같이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거주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회자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규범, 신뢰, 네트워크의 3가지 하위변수로 구성되며,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임대아파트, 기타로 구성되었다.

<가설1-6>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자본과 거주형태 간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3가지 하위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규범의 경우 유의확률 $p < .001$ 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유의수준 $p < .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자가의 경우 규범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3.766), 다음으로 임대아파트(13.250), 월세(13.100) 순으로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뢰 변수의 경우 유의확률 .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경우 역시 자가의 거주형태에서 신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055), 다음으로 전세(8.654), 월세(8.100)의 순으로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거주형태가 안정적인 경우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경우 역시 유의확률 .000으로 거주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변수 역시 다른 변수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가의 거주형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1.188), 다음으로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사회자본과 거주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주거형태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규범	자가	256	13.766	2.608	4.235	.001
	전세	136	12.809	2.731		
	월세	20	13.100	2.882		
	사글세	1	10.000	.		
	임대아파트	8	13.250	1.282		
	기타	11	11.182	2.714		
신뢰	자가	256	9.055	2.465	3.080	.010
	전세	136	8.654	2.229		
	월세	20	8.100	2.447		
	사글세	1	8.000	.		
	임대아파트	8	8.000	1.773		
	기타	11	6.636	1.963		
네트워크	자가	256	11.188	2.215	4.950	.000
	전세	136	10.603	1.879		
	월세	20	9.950	2.328		
	사글세	1	9.000	.		
	임대아파트	8	9.250	1.753		
	기타	11	9.091	2.625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평균수입의 분석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거주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부의 격차에 따라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자본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득격차에 따른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보충적인 정책적 보조가 동반되어야함을 암시한다.

2)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분석결과

(1) 지역사회참여와 성별

가장 먼저 지역사회참여의 구성요소로 선정된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참여의 구성요소와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15>와 같다.

<표 4-15> 지역사회참여와 성별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성 별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정치참여	남성	184	12.663	3.572	2.902	.004
	여성	248	11.673	3.455		
수평적 참여	남성	184	10.734	2.959	.633	.181
	여성	248	10.552	2.931		
수직적 참여	남성	184	12.772	3.023	.732	.215
	여성	248	12.556	3.019		
자원봉사 참여	남성	184	5.957	1.986	-4.772	.000
	여성	248	6.835	1.818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들인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에 대해 실시한 분산분석 결과, 수평적 지역사회참여($p<.181$)와 수직적 지역사회참여($p<.215$)는 성별의 차이와 통계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참여($p<.004$, $F=2.902$)와 자원봉사참여($p<.000$, $F=-4.77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보다 낮은 유의확률을 보였기에 지역사회참여와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정치참여 변수의 경우 남성(12.663)이 여성(11.673)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와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치참여에 있어 남성 참여가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자원봉사참여는 남성(5.957)에 비해 여성(6.835)이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서 여성 자원봉사자가 전체의 59%(634,565명), 남성 자원봉사자가 41%(446,476명)라는 수치를 지지한다.

(2) 지역사회참여와 연령

다음은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인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에 대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 하나인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2>인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참여와 연령 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2-2>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지역사회참여와 연령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연 령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정치참여	20~29세	99	11.586	3.549	2.578	.037
	30~39세	100	11.520	3.258		
	40~49세	100	12.240	3.522		
	50~59세	111	12.766	3.575		
	60세 이상	22	12.955	4.029		
수평적 참여	20~29세	99	10.030	2.834	6.598	.000
	30~39세	100	9.800	2.697		
	40~49세	100	10.900	2.650		
	50~59세	111	11.586	3.001		
	60세 이상	22	11.045	3.885		
수직적 참여	20~29세	99	11.586	3.071	11.643	.000
	30~39세	100	11.980	2.625		
	40~49세	100	12.620	2.777		
	50~59세	111	13.946	2.938		
	60세 이상	22	14.045	3.258		
자원봉사 참여	20~29세	99	6.465	2.022	2.357	.053
	30~39세	100	6.120	1.506		
	40~49세	100	6.300	2.115		
	50~59세	111	6.892	1.951		
	60세 이상	22	6.545	2.154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의 4가지 하위 변수 중 자원봉사참여 변수는 유의확률 .053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보다 높기 때문에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경우 $p<.037$, $F=2.57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평균 값 12.955로 정치참여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50대,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즉,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변수는 $F=6.598$,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50대 연령대에서 수평적 지역사회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60대, 40대, 20대, 30대 연령대의 순으로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변수는 $F=11.643$, $p<.000$ 으로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의 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대,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직적 사회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했을 때, 60대 이상에서의 지역사회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60대 이상의 노인의 경우 사회에서 은퇴 이후 여가시간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20, 30대의 연령대에서는 낮은 지역사회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에 대한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유인과 관심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지역사회참여 활동이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변질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젊은 세대에서 참여가 사라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젊은 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참여와 최종학력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인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에 대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인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 <가설 2-3>을 검증하였다.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들과 최종학력 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7> 지역사회참여와 최종학력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최종학력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정치참여	고졸	153	12.137	3.493	3.600	.014
	전문대졸	66	11.348	3.015		
	대졸	180	12.022	3.567		
	대학원졸 이상	33	13.788	4.076		
수평적 참여	고졸	153	10.889	3.184	2.881	.036
	전문대졸	66	10.076	2.586		
	대졸	180	10.422	2.728		
	대학원졸 이상	33	11.667	3.285		
수직적 참여	고졸	153	12.712	3.248	2.453	.063
	전문대졸	66	12.197	3.207		
	대졸	180	12.533	2.753		
	대학원졸 이상	33	13.879	2.701		
자원봉사 참여	고졸	153	6.431	2.244	1.830	.141
	전문대졸	66	6.045	1.767		
	대졸	180	6.550	1.705		
	대학원졸 이상	33	6.939	1.853		

분산분석 결과,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 중 정치참여($F=3.600$, $p<.014$)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F=2.881$, $p<.036$)는 조사 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정치참여의 경우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이 평균 값 13.7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졸의 학력이 평균 값 12.137로 높은 정치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의 경우 역시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고졸의 학력이 평균 값 10.8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와 자원봉사참여는 각각 유의확률 .063, .141로써 분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p < .05$ 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사회참여와 직업

지역사회참여와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8> 지역사회참여와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직 업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정치참여	공무원	22	13.818	3.404	3.092	.003
	자영업	47	11.489	2.292		
	회사원	44	11.773	2.803		
	복지기관종사자	190	12.016	3.754		
	전문직	41	13.537	4.302		
	주부	23	10.304	2.899		
	무직	8	13.375	5.153		
	기타	57	11.947	3.073		
수평적 참여	공무원	22	11.182	2.363	2.585	.013
	자영업	47	9.979	2.558		
	회사원	44	10.000	2.812		
	복지기관종사자	190	10.953	3.008		
	전문직	41	11.512	2.794		
	주부	23	9.957	2.654		
	무직	8	8.375	3.701		
	기타	57	10.316	3.112		
수직적 참여	공무원	22	12.864	2.731	2.514	.015
	자영업	47	13.191	2.300		
	회사원	44	12.705	2.557		
	복지기관종사자	190	12.695	3.041		
	전문직	41	13.707	2.892		
	주부	23	12.261	3.222		
	무직	8	12.000	3.891		
	기타	57	11.404	3.469		
자원봉사 참여	공무원	22	6.955	1.463	7.204	.000
	자영업	47	4.915	1.816		
	회사원	44	6.364	1.586		
	복지기관종사자	190	6.900	1.830		
	전문직	41	6.415	1.703		
	주부	23	6.435	2.063		
	무직	8	5.000	1.927		
	기타	57	6.404	2.211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인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 4가지 변수 모두 직업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평균 값 13.8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전문직이 13.537, 무직이 13.375로 높은 정치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와 자영업자는 각각 평균 값 10.304, 11.489로 가장 낮은 정치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지역사회참여는 $F=2.585$, $p<.0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이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1.512), 다음으로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의 순으로 높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지역사회참여는 $F=2.514$, $p<.015$ 로 직업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부적으로 전문직의 경우 수직적 지역사회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3.707), 다음으로 자영업의 직업을 가진 집단이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3.191). 그러나 기타 직업과 무직의 경우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 가장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참여의 경우 $F=7.204$, $p<.000$ 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가장 높은 자원봉사참여를 보였으며(6.955)다음으로 복지기관 종사자(6.900), 주부(6.43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지역사회참여와 평균수입

평균수입에 따라 지역사회참여의 하위 4개 변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5>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9> 지역사회참여와 평균수입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평균수입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정 치 참여	100만원 미만	122	12.287	3.928	9.404	.000
	100~200만원	143	11.601	3.374		
	200~300만원	66	11.515	2.894		
	300~400만원	55	11.600	2.439		
	400~500만원	34	13.353	3.489		
	500만원 이상	12	17.917	3.029		
수 평 적 참여	100만원 미만	122	11.131	3.257	7.118	.000
	100~200만원	143	10.070	2.949		
	200~300만원	66	9.985	2.304		
	300~400만원	55	10.291	2.354		
	400~500만원	34	11.824	2.736		
	500만원 이상	12	13.917	1.621		
수 직 적 참여	100만원 미만	122	12.262	3.592	5.320	.000
	100~200만원	143	12.406	2.841		
	200~300만원	66	12.318	2.690		
	300~400만원	55	12.945	2.289		
	400~500만원	34	14.088	2.314		
	500만원 이상	12	15.833	2.329		
자 원 봉 사 참여	100만원 미만	122	6.992	2.142	8.555	.000
	100~200만원	143	6.434	1.714		
	200~300만원	66	5.530	1.883		
	300~400만원	55	5.927	1.762		
	400~500만원	34	6.706	1.715		
	500만원 이상	12	8.250	0.622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의 4가지 변수 모두 평균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4가지 변수 모두에서 100~200 만원의 소득을 갖는 집단에서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 평균 수입을 갖는 집단에서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양극단의 소득을 보이는 집단이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층에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사회참여와 거주형태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인 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에 대해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 하나인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설 2-6>으로 설정한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은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들과 주거형태 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0> 지역사회참여와 거주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주거형태	N	평 균	표준편차	t/F 값	유의확률
정치참여	자가	256	12.426	3.701	1.301	.262
	전세	136	11.618	3.195		
	월세	20	11.550	3.284		
	사글세	1	15.000	.		
	임대아파트	8	11.625	3.378		
	기타	11	11.364	3.880		
수평적 참여	자가	256	11.211	2.973	6.217	.000
	전세	136	10.037	2.671		
	월세	20	9.050	2.438		
	사글세	1	10.000	.		
	임대아파트	8	8.500	3.625		
	기타	11	8.909	2.256		
수직적 참여	자가	256	13.133	3.037	5.498	.000
	전세	136	12.324	2.655		
	월세	20	10.950	2.874		
	사글세	1	10.000	.		
	임대아파트	8	10.500	4.504		
	기타	11	10.273	2.970		
자원봉사 참여	자가	256	6.965	1.756	9.920	.000
	전세	136	5.824	1.947		
	월세	20	5.450	1.986		
	사글세	1	5.000	.		
	임대아파트	8	4.875	2.588		
	기타	11	5.727	1.737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의 4가지 하위변수 중 정치참여 변수는 유의확률 .262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하위변수는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거주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의 경우 자가의 거주형태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211), 다음으로 전세의 거주형태에서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가장 낮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500).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역시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와 마찬가지로 자가의 거주형태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133). 다음으로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의 순으로 높은 참여를 보였다.

자원봉사참여는 자가(6.965), 전세(5.824)의 거주형태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아파트와 사글세의 경우 자원봉사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거주형태에 따른 3가지 하위변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거주형태가 안정적인 집단일수록 지역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써, 경제적 안정이 선행된 상태에서만이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참여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회자본은 각각 신뢰, 네트워크, 규범의 하위변수와 사회자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들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3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설3-1, 가설3-2, 가

설3-3을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3가지 하위변수와 지역사회참여가 보이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21>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규범	신뢰	네트워크	사회자본	지역사회 참여
규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	1	0.515 **	0.239 **	0.808 **	0.300 **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N	432	432	432	432	432
신뢰	피어슨 상관관계계수	0.515 **	1	0.303 **	0.807 **	0.285 **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N	432	432	432	432	432
네트워크	피어슨 상관관계계수	0.239 **	0.303 **	1	0.643 **	0.371 **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N	432	432	432	432	432
사회자본	피어슨 상관관계계수	0.808 **	0.807 **	0.643 **	1	0.417 **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N	432	432	432	432	432
지역사회 참여	피어슨 상관관계계수	0.300 **	0.285 **	0.371 **	0.417 **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N	432	432	432	432	432

**, 상관계수의 유의확률 p<.001

Pearson's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p<.000), 신뢰(p<.000), 네트워크(p<.000) 모두 지역사회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범의 경우, 지역사회참여와 피어슨 계수 0.300으로 두 변수 간에는 30.0%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의 관계로써,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하나인 신뢰 변수의 경우 피어슨 상관관계수가 0.2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와 28.5%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정(+)의 관계로써 사회자본으로써의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도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하위변수 중 마지막 변수로써, 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변수 역시 유의확률 $p < .000$ 으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어슨 상관관계수는 0.371로 두 변수 간에는 37.1%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참여 변수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사회 내의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주체적 참여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사회자본의 각각의 하위변수가 아닌 사회자본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참여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피어슨 상관관계수 값이 0.417로 두 변수는 41.7%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참여도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에 대해 각각의 종속변수의 하위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에 대한 지역사회참여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의 3가지 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도의 변수 중 하나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22>와 같다.

<표 4-22>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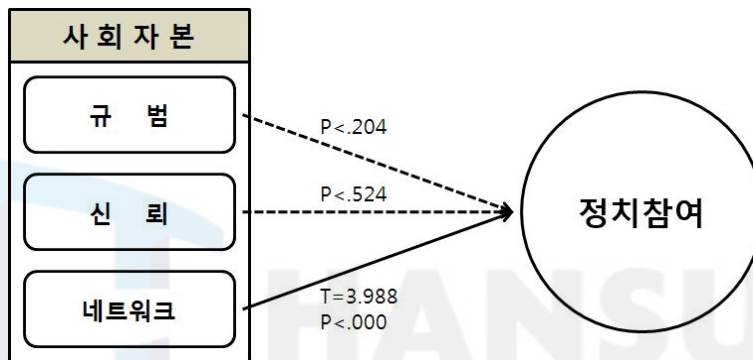
Model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Constant)		1.064	6.507	0.000
규범	0.070	0.072	1.271	0.204
신뢰	0.036	0.083	0.638	0.524
네트워크	0.197	0.081	3.988	0.000
R = .242	R square = .059	adjusted R square = .052	F= 8.872	Sig = .000
* p<.05				

위 표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 규범($p<.204$)과 신뢰($p<.524$)는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도의 하위 요소 중 정치참여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자본의 하위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는 정치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88$, $p<.000$). 이에 대한 회귀계수는 0.197로 네트워크는 정치참여에 19.7%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이 값은 양의 값을 보이며, 이는 정(+)의 관계로써 사회 테두리 안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날수록 정치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네트워크 안의 상대방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하고 이로써 정치참여 동기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 자본으로써 현대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부재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이제 더 이상 선거참여를 위한 가시적 유인에서 벗어나 정치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 그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자본으로써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영향 관계

2) 사회자본과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의 3가지 변수가 지역사회참여도의 하위변수 중 하나인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23>과 같다.

<표 4-23> 사회자본과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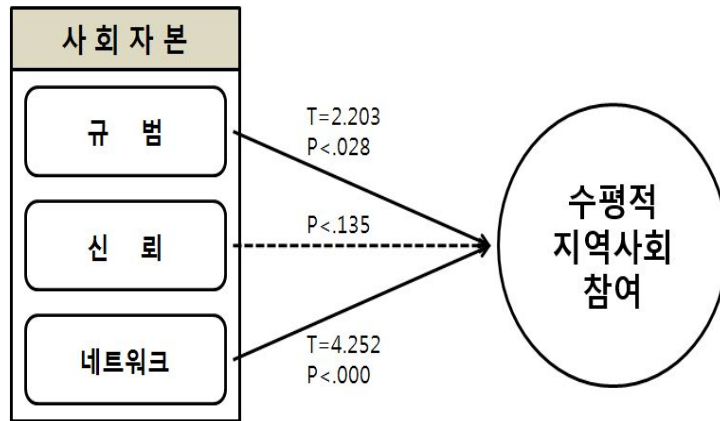
Model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Constant)		0.867	5.747	0.000
규범	0.119	0.059	2.203	0.028
신뢰	0.082	0.067	1.496	0.135
네트워크	0.206	0.066	4.252	0.000
R = .309	R square = .095	adjusted R square = .089	F= 15.051	Sig = .000
* p<.05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3가지 하위변수 중에서 신뢰변수는 종속변수인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135$). 사회자본의 나머지 두 변수인 규범($T=2.203$, $p<.028$)과 네트워크($T=4.257$, $p<.000$) 변수는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의 경우 회귀계수가 0.119로 종속변수인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11.9%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는 양수로 두 변수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평적 지역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유의확률 $p<.000$ 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 $p<.05$ 에서 종속변수인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0.206으로 20.6%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범과 마찬가지로 정(+)의 관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평적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델은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제곱 값이 .089로 약 8.9%의 다소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사회자본과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의 영향 관계

3) 사회자본과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이 종속변수의 하위변수 중 하나인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가설<3-3>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4-24> 사회자본과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Model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Constant)		0.848	5.410	0.000
규범	0.204	0.058	3.976	0.000
신뢰	0.069	0.066	1.323	0.186
네트워크	0.281	0.064	6.084	0.000
R = .423	R square = .179	adjusted R square = .174	F= 31.167	Sig = .000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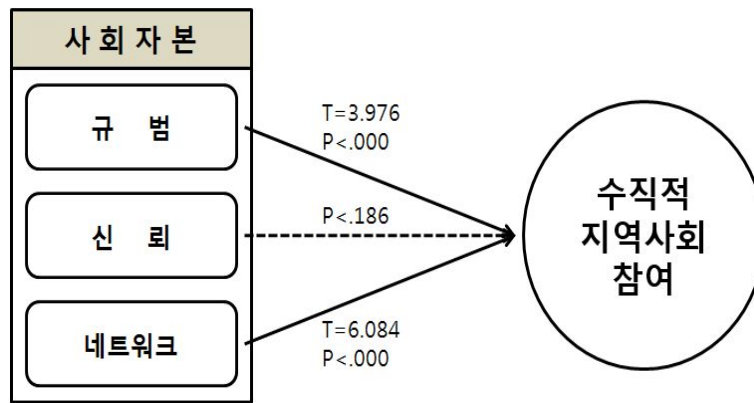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의 3가지 변수 중 신뢰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

았다($p<.186$). 나머지 사회자본의 변수인 규범과 네트워크는 수직적 지역 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규범 변수의 경우 유의확률 $p<.000$ 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 수준의 범위에서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76$, $p<.000$). 회귀계수는 0.204로써 종속변수인 수직적 지역사회참여도에 20.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는 양수로써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직적 지역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유의확률 $p<.000$ 으로 종속변수인 수직적 지역사회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084$, $p<.000$). 회귀계수는 0.281로써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 28.1%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회귀계수가 양수로써 수직적 지역사회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수직적 지역사회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요소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참여에 있어서 사회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망 내의 인적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수의 생활에 있어서의 남들과 함께하는 경험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수직적 지역사회단체란 종교단체,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수직적 지역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망 내에서 소외되거나 네트워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4-3> 사회자본과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의 영향 관계

4)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가설 3-4>를 통해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회자본의 세 가지 하위 변수(규범, 신뢰,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참여도의 하위변수 중 하나인 자원봉사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5>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참여의 회귀분석 결과

Model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Constant)		0.547	2.832	0.005
규범	0.159	0.037	3.091	0.002
신뢰	0.169	0.042	3.221	0.001
네트워크	0.225	0.041	4.851	0.000
R = .416	R square = .173	adjusted R square = .167	F= 29.784	Sig = .000
* p<.05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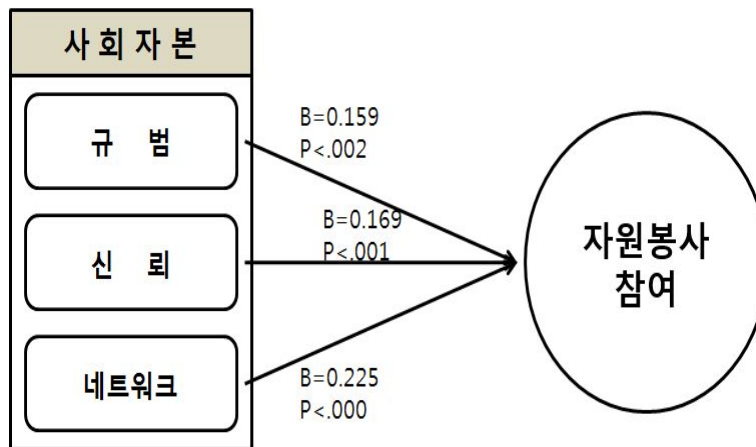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규범의 경우 자원봉사참여와 통계적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91$, $p<.002$). 회귀계수는 0.159로써 종속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에 15.9%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는 정(+)의 관계로써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뢰는 종속변수인 자원봉사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221$, $p<.001$).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0.169로써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16.9%만큼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자본의 신뢰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네트워크는 유의확률 .000으로 자원봉사 참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베타 값은 0.225였으며, 정(+)의 관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서로 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델은 수정된 R제곱의 값이 .167로 약 16.7%의 모델 설명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참여의 연구결과는 자원봉사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가진 한정적인 자원으로는 양과 질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집단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신뢰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봉사자가 그 신뢰를 토대로 자신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자신이 지금 행한 것과 같은 봉사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4-4>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참여의 영향 관계

제4절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

1. 가설1: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선정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의 특징에 따라 사회자본의 하위변수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가설1>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의 6가지 항목에 따라 <가설1-1> ~<가설1-6>의 세부 가설이 설정되었다.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6> 가설1 검증결과

구분	가설	검증결과	비고
가설1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1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규범: $p<.032$ 네트워크: $p<.002$	
1-2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뢰: $p<.000$	
1-3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p<.009$	
1-4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뢰: $p<.000$ 네트워크: $P<.000$	
1-5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평균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뢰: $p<.000$ 네트워크: $p<.000$	
1-6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규범: $p<.001$ 신뢰: $p<.010$ 네트워크: $p<.000$	

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선정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에서 위와 같이 사회자본의 특정하위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성별의 경우 규범($p<.032$), 네트워크($p<.00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규범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의 경우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역시 네트워크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P<.000$), 네트워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00$). 평균수입에 있어서는 신뢰와 네트워크($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거주형태에서는 각각 규범($p<.001$), 신뢰($p<.010$), 네트워크($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거주형태가 안정적이거나 수입이 높은 경우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2: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선정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의 특징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가설2>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수입, 거주형태의 6가지 항목에 따라 <가설2-1>부터 <가설2-6>의 세부 가설이 설정되었다.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7> 가설2 검증결과

구 분	가 설	검증결과	비고
가설2	지역사회참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 택	
2-1	지역사회참여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 $p<.004$ 자원봉사: $p<.000$	
2-2	지역사회참여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 $p<.037$ 수평참여: $p<.000$ 수직참여: $p<.000$	
2-3	지역사회참여는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 $p<.014$ 수평참여: $p<.036$	
2-4	지역사회참여는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 $p<.003$ 수평참여: $p<.013$ 수직참여: $p<.015$ 자원봉사: $p<.000$	
2-5	지역사회참여는 평균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 $p<.000$ 수평참여: $p<.000$ 수직참여: $p<.000$ 자원봉사: $p<.000$	
2-6	지역사회참여는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수평참여: $p<.000$ 수직참여: $p<.000$ 자원봉사: $p<.000$	

검증결과, 지역사회참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가설2는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성별의 경우 정치참여($P<.004$)와 자원봉사($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남성이 정치참여도가 높고 여성

은 자원봉사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의 경우 정치참여($P<.037$)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P<.000$), 수직적 지역사회참여($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6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 지역사회에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정치참여($P<.014$)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P<.03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정치참여($P<.003$)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P<.013$), 수직적 지역사회참여($P<.015$), 자원봉사참여($P<.000$) 즉, 종속변수의 모든 하위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평균수입은 종속변수의 모든 하위변수와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을 통해 전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가설3>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표 4-28> 가설3 검증결과

구 분	가 설	검증결과	비고
가설3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3-1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 $p<.000$	부분 채택
3-2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범: $p<.028$ 네트워크: $p<.000$	부분 채택
3-3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범: $p<.000$ 네트워크: $p<.000$	부분 채택
3-4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은 자원봉사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범: $p<.002$ 신뢰: $p<.001$ 네트워크: $p<.000$	채택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 3>을 설정하여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가설 3에서 선정한 하위 4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 중에서 네트워크는 정치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서는 규범과 네트워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서 역시 규범과 네트워크, 자원봉사참여에서는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가 각각의 지역사회참여의 하위변수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지역사회의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자본의 형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참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참여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3가지 주요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계학적 기술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시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형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 자본으로써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네트워크란 사회망 내부에서 형성되는 사람 혹은 조직으로써의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사회영역에서의 활동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풍부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 자본으로써의 네트워크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 자본으로써의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뢰는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 정부 혹은 주민자치에 대한 신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젊은 연령대의 이러한 신뢰부족 현상은 최근에 발생한 쇄고기 파동 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상의 정부비난 목소리

리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사회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자본으로써의 네트워크 형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학력자들은 고학력자에 비해 부족한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

넷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일수록 사회자본이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거주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적인 사회자본 형성이 부익부 빈익빈을 유발하도록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의 행태에서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2로 설정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사회참여도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참여로써의 정치참여도는 남성이 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참여도에서 남성이 높은 참여정도를 보인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 급격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부족함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참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치를 지지해 주고 있다(남성 41%(446,476명), 여성 59%(634,565명)).

둘째,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지역사회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에서는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봉사활동참여도에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는 취업을 위한 스펙 향상을 위한 예외적 높은 참여도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다른 부분의 지역사회참여도에서는 매우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젊은 층의 지역사회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평균수입이 높은 가정일수록 지역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어 흐르다보면 자칫 지역사회 운영에 있어서 부유층의 의견만이 투영되어 그들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으로 변질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거주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지역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평균수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가설3으로 설정한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도는 사회망 내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토대로 다채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수록 지역사회참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 변수 중 네트워크 요소는 수평적 지역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정치적 참여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내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써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 3가지 변수 모두 자원봉사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만의 공공정책을 통한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참여

활성화는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와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규범요소와 네트워크 요소가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세부적인 정책적 제언은 다음의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참여도와 사회자본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가정에서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세대에 대하여 사회 자본으로써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가, 정부, 자체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들어 각종 반정부 온라인, 오프라인 시위는 젊은 세대가 주도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와의 다양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서 그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자본으로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신뢰를 악화시키는 수많은 루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정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온라인에서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자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일수록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이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퍼트남(Putnam)은 사회자본에 대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경제적 격차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자본이 형성되게 된다면 부유층은 자신들의 부를 토대로 유리한 사회자본의 이점을 누리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자본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저소득층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양극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박탈감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자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참여도 차이를 줄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참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자원봉사참여에 있어서는 반대로 여성이 더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 와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할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며 이에 따른 양성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보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단체나 지역사회단체와 같은 정치참여 단체에 일정비율의 여성 참여를 강제하게 하고 이 비율을 시간이 지날수록 늘려나감으로써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원봉사는 현대 사회복지에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정부의 제한적 자원을 보충해주고 이러한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까지 복지의 영향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주부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들만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써 사원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젊은 세대의 지역사회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젊은 층의 지역사회 참여도는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

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젊은 세대가 서로 소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의 커뮤니티 그룹을 형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대표로 선출한 지역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으로 이끄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상류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온·오프라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확장시켜가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은 필수적이다. 정부의 한정된 자원과 능력으로는 모든 사회적 약자를 케어(care)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요소는 봉사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시민 개개인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나 결함 없는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 변화 대상의 의식의 전환이다. 주민의 대표를 뽑아 대표를 통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간접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이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혹은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간접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불리고 있다.

지역의 주인은 시민이다. 따라서 주민 개개인이 그 지역의 주인이며, 지역의 발전은 자신의 발전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때만이 진정한 지역사회발전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대선·류기형,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응집력과
지역사회 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1
호, 2007, pp.33-34.
- 곽현근,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
정연구』 제14권 제3호, 2004, pp.259-285.
- 곽현근, 「개인수준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년 지방선거, 2004년 총선, 2002년 대선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9권 제3
호, 2007, pp.5-30.
-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5.
- 구혜정, 「전환기의 평생교육: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만남」, 한국교육
학연구, 제8권 제2호, 2002, pp.275-296.
- 구혜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남선·김은영, 「리더십과 지역사회조직의 사회자본」, 『한국국제지역사
회개발학회』 제12권 제2호, 2002, pp.1-24.
- 김명숙, 「지역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지방자치학회보』 제
16권 제3호, 2004. pp.23-42.
- 김상돈,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김상미, 「중소도시 행정혁신과 지역발전 전략-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5, pp.139-163.
- 김상준, 「부르디외, 콜만,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
회학』, 2004, pp.63-95.
- 김종미, 「중산층 주부의 여성주의 정치학과 사회자본 창출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M여성단체 D지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김종해,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부천시 조례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준기,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2006.
- 김창학,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남궁근,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 연구』 제13권 제4호, 2007, pp.297-325.
- 민영,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6호, 2007, pp.190-217.
- 박병진,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2007, pp.65-105.
- 박선희,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가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박숙미, 「신뢰구조의 동학과 사회자본의 형성: 위험생산-회피구조의 발생론적 접근에 기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박희봉,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2002, pp.221-237.
- 박희봉, 「사회자본과 행정: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제8권 제1호, 2002, pp.5-44.
- 박희봉,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2006, pp.1-23.
- 박희봉·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2001, pp.219-237.
- 배귀희·임승후,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 구」,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2009 겨울, pp.1421-1447.
- 서해숙,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설홍수,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p.16-22.
- 소진광, 「지방자치와 사회적 자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4호, 2000, pp.93-112.
- _____,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성남발전연구』 제3권, 경원대학교 성남발전연구소 편, 2003.
- _____,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4, pp.89-118.
- 송건섭,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의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1호, 2009. pp.99-121.
- 송경재,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별 변화와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3호, 2006, pp.133-164.
- 송지준, 『SPSS / 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2008.
- 안성호·곽현근, 「동네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pp.213-254.
- 안우환·김경식,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제53권 제1호, 2005, pp.29-50.
-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0.
- 오홍석, 「조직의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회』 제12권 제2호, 2002, pp.25-42.
-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3.
- 윤민재, 「신뢰와 사회자본에 대한 사회적 이해」, 한림과학원, 『신뢰연구』 제14권 제1호, 2004, pp. 3-35.
- 이영수, 「다매체 환경에서 개인의 정치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 관한 연구: 사회자본과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이영찬, 「기업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개발」,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지식연구』 제5권 제1호, 2007, pp.47-74.
- 이형하,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연구』, 서울: 이담, 2010.
- 이회창·박희봉, 「사회자본과 지역발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4호, 2005, pp. 1183-1206.
- 이회창·박희봉·정지용, 「지방정부조직성과에 대한 인적 자원관리와 사회자본의 영향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3호, 2007, pp.127-151.
- 정기환·심재만·최경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주성수,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 , 『NGO와 시민사회』, 서울: 한양대 출판부, 2004.
- 한상미,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홍영란·김태준·조영하·박희봉·양정호,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6.
- 홍영란·김태준·현영섭·소진광·이승희,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홍현미라,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서의 자원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2. 국외문헌

Adler, P. S. & Kwon S. W.,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 The Ugly" In Eric L.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Boston: Burtworth Heinenmann, 2000, pp.89-115.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easuring Social Capital: Discussion Summary and Next Steps. December. 2002, p.4.
- Bain, K., et al., "Together We Stand, Divided We Fall: Levels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in Argentina", Report No.24281,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Unit,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2002.
- Berman, *The Apples project: A status report*, Proceedings of the 8th NEC Research Symposium, 1997.
- Booth & Richard, "Repressio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norms in urban Central Ame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98.
-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s) John G.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pp.241-258.
- Bukov. et at., "Social Participation in Very Old Age", *Oxford Journals*, Vol. 57, 2002, pp.510-517.
- Burt, R. S.,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in Nan Lin, Karen and Cook, R. S. Burt(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2001.
- _____,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2, No.2, 1997, pp.339-365.
- _____,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al of Compet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Chase, R. S. & Holememo, C. R.,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Designing a baseline survey in the Philippines", World Bank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Report, Washington,

- D.C., The World Bank, 2005.
- Coleman, J.,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The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1988, pp.95-120.
- Ellis & Noyes, *By the people: A history of Americans as volunteers*, Jossey-Bass, 1990.
- Euchner, C. *Extraordinary Politics: How Protest and Dissent Are Changing American Politics*(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p.16.
- Foley, M. W. & Edwards B., "Is It Time to Disinvest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Policy*, Vol.19, No.5, 1999, pp.141-173
- Franke, S., *Mesurement of Social Capital: Reference Document for Public policy Research, Development, and Evaluation*, PRI Project – Social Capital as a Public Policy Tool, 2005.
-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pp.26-33.
- Gachter & Herrmann & Thoni, Trust, "voluntary cooperation,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ume 55, Issue 4, 2004, pp. 505-531.
- Granovetter, M.,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973, pp.1360-1380.
- Granovetter,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cian Journal of Sociology* 91, 1885, pp.481-510.
- Grootaert, C., "Does social capital help the poor?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the local level institutions studies in Bolivia, Burkina, Faso and Indonesia", *Local Level Institutions Working*

- Papers, No.10,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1.
- Grootaert, C., et al.,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1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 Ibanez, A. M., Lindert K., & Woolcock M., "Social Capital in Guatemala: A mixed method analysis", Technical Background Paper, No.12, Guatemala Poverty Assessment Program, 2002.
- Jackman, R. W. & Miller R. S., "Social Capital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1, 1998, pp.47-73.
- Knack, S.,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2000, pp.772-785.
- Lin, Na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19, pp.55-56.
- Narayan, Deepa. *Bonds and Bridges: Social Capital and Poverty*. World Bank. 1999.
- Narayan, D. & Cassidy M. F.,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Vol.49, No.2, 2001, pp.59-102.
- Newton, K.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ris(ed), *Critical Citizen: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Press, 1999, pp.8-10.
-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2001.
- Offe, Disorganized Capitalism: *Contemporary Transformation of Work and Politics*, The MIT Press, 1985.
- Polanyi, K & Arensberg CM & Pearson HW,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1957.

- Portes, A.,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1998, pp.1-24.
- _____,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1998, p.6.
- Portes, A. & Sensenbrenner J.,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93, pp.1320-1350.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a, p.82, p.167, p.169, p.170.
- _____,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s*, 4(13), 1993b, pp.35-42,
- _____,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1995, pp.664-683.
- _____,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pp.20-23.
- Rosalyn, H & Maryanne K, "Measuring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3.
- Skocpol, T. "Recent Transformation of Civic Life." In Skocpol, T. and Fiorina, M. (eds)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1999b, pp.489-509.
- Veenstra & Lomas,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 Place, 1999.
- Verba, S., Nie, N. and Kim,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46.
- Waldinger, R., "The Other Side of Embeddedness: A Case Study of the Interplay between Economy and Ethnic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18, 2005, pp. 555-580.

Wetterberg A., "Crisis, social ties, and household welfare: Testing social capital theory with evidence from Indone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Winter, Ian, Towards a theorized understanding of family life and social capital.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Working Paper No.21, 2000, p.5.

Woolcock, M.,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998, pp.151-208.

World Bank, "*What is Social Capital*,"

<http://www.worldbank.org/peverty/scapital/whatsc.htm>, 2002.

Zucker, L. G.,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1986, pp.53-111.

【기타자료】

[http://www.hks.harvard.edu/saguaro/Saguaro Seminar](http://www.hks.harvard.edu/saguaro/Saguaro_Seminar), 2007.

<http://www.statistics.gov.uk/socialcapital>

<http://www.policyresearch.gc.ca/>

<http://www.abs.gov.au/>

【부 록】

(설문지)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정책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본 연구에 중요한 연구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일체 알려지지 않고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므로 개인적인 응답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이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7 월 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 황 진 수

연구자 : 홍 성 모

연 락 처 : 010-8824-6834

I. 다음은 사회자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규범에 관한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역주민은 법을 잘 지킨다.					
2. 우리나라는 사회도덕이 확립된 국가이다.					
3.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하는 국민이다.					
4. 우리나라 국민은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					

2. 신뢰에 관한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행정을 신뢰한다.					
6.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					
7. 나는 지역주민센터를 신뢰한다.					

3. 네트워크에 관한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가까운 친구가 많은 편이다.					
9. 내가 속한 조직은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이다.					
10. 내가 속한 조직의 회원들은 다른 조직의 회원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다.					

II. 다음은 지역사회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참여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각종 선거 때 정치적인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한다.					
12.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 사회의 제반 문제에 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 각종 신문 및 출판물에 기고 또는 청원서에 서명한다.					
14. 정당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참여하고자 한다.					
15. 나는 각종 선거에 참여하고자 한다.					

2.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가입하고자 한다.					
17. 지역사회 체육회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18. 지역사회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에 참여하고자 한다.					
19. 사회복지 자선모금, 후원에 참여하고자 한다.					

3.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거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21. 동창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22. 친목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23. 향우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4. 자원봉사참여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25. 새로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개발과 탐색에 관심이 있다.					

III. 다음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중퇴포함) ② 전문대졸(중퇴포함)
③ 대졸(중퇴포함) ④ 대학원 졸업이상
-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 ② 자영업 ③ 회사원 ④ 복지기관종사자
⑤ 전문직 ⑥ 주 부 ⑦ 무 직 ⑧ 기 타
- 귀하의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귀하의 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自家) ② 전세 ③ 월세 ④ 사글세
⑤ 임대아파트 ⑥ 기타

ABSTRACT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Hong, Sung-Mo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to social capital and the ways toward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s a means of revitalizing community participation. It's basically meant to investigate the function of social capital as a way of boosting the collective ac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since the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he key roles of a civic society are increasingly emphasized.

The following efforts were made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the state of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Korean local communities and the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analyzed to look for any regional gaps in those regards.

Second, the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on networking, trust and normatism were investigated.

Third, the correlation of the social capital of local governments to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was checked.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1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First, the men placed more significance on networking as social capital than the women, and networking was more prevailing in the former than the latter.

Second, the younger people put less confidence in networking as social capital.

Third, networking as social capital was more widespread among the better-educated people.

Fourth, there was more social capital in the families that were well off.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2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First, concerning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the men were more involved in politics, and the women did more volunteer work.

Second, community participation was more prevailing among the older people who were in their 50s and 60s or up, and that was prevailing the leas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who were in their 20s and 30s.

Third, community participation was more widespread among the families that had a larger average income.

Fourth, community participation was more rampant among those whose residential conditions were better.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3 on social capital and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First,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was linked to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was under the influence of human network.

Second, the networking factor, one of the social capital variables, had an impact on vertical participation in local organizations.

Third, all the three variables of social capital that were norms, trust and networking exercised a positive influence on volunteering participation.

Fourth, as the findings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suggest, more extensive and aggress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generate plenty of social capital to bolster community particip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out of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he norm factor and networking facto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mmunity participation, which was the dependent variable. So the government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boost people's community participation.

Finally, there are some suggestions on this issue:

First, it'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gain the confidence of the younger generation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younger people didn't put confidence in the natio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political circles and government should try to communicate with the younger generations in diverse ways in order to understand and get closer to them to gain their confidence as social capital.

Second, politic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narrow the gap in social capital triggered by economic standing. In this study, the families that were well off took a better view of social capital. It denotes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depended on economic status. Putnam defined social capital as facilitating cooperation in pursuit of mutual interest, but if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hinges on economic standing, the rich will benefit better from their own advantageous

social capital thanks to their wealth, and the low-income classes will benefit less from their disadvantageous social capital. So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narrow the gap in social capital.

Third, the gender-specific gap in community participation should be narrowed as well. As discussed above, the men were far more involved in politics than the women, and the women took more part in volunteer work. Although it's said that women play more roles as working people in modern society, men still take the initiative,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s to attain gender equity.

Fourt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s should be encouraged. In this study, the younger generations who have to take the lead in community participation fell behind the most in that regard. The government should push ahead with appropriate policies to urge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Fifth, a wide variety of online and offline communities should be generated and aided to boost community participation.

Sixth, politic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boost volunteer work to step up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In modern society, volunteer work is mandatory for the achievement of the ultimate goal of social welfare, and it's almost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take care of all the disadvantage people. In this study, the networking element, one of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impact on volunteer work.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create various kinds of volunteering networks to further people's interaction and volunteer work.

Finally, what matters the most is that individual citizens should change their way of looking at community participation. A change of mind-set is more crucial than a huge budget or the best policy setting.

Indirect democracy that people's community participation is fulfilled through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s not the only and best way to expedit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local development.

The masters of a region are citizens. Individual local residents should keep in mind that they are the masters of their region, and that local development is their own development, and they should take active part in their local communities, which will be a short cut to the genuin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